

# まるごと 日本のことばと文化

## 中級 2(B1)

スクリプト・テキストの翻訳

(韓国語)

스크립트 및 텍스트 번역

(한국어)



## Topic 1 어떤 사람 ?

### PART 1 결혼하게 되었어요

|          |                                                                                     |
|----------|-------------------------------------------------------------------------------------|
|          | ①                                                                                   |
| 하루나(여성)  | 음, 갑작스럽지만, 실은 이번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
| 앤디(남성)   | 휘~휘~ (휘파람 부는 소리)                                                                    |
| 유스케(남성)  | 오~ 축하해.                                                                             |
| 에미(여성)   | 축하해. 그래서, 상대는? 일본 사람이야?                                                             |
| 하루나(여성)  | 아니, 여기 사람이야.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뭐 서로 나이도 나이고, 슬슬 호적에 올릴까 해서.                      |
| 듣는사람(여성) | 호적에 올린다니?                                                                           |
| 하루나(여성)  | 아~ 정식으로 결혼하려고.                                                                      |
| 듣는사람(여성) | 그렇구나. 축하해.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
| 하루나(여성)  | 음-, 뭐라고 해야 하나, 어린애 같은 면이 있지. 좀 칠칠치 못하고 허술한 느낌이야.                                    |
| 듣는사람(여성) | 어, 예를 들면?                                                                           |
| 하루나(여성)  | 방 정리를 잘 못한다든가, 같은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주일 연속으로 입는다든가.... 그래도 뭐랄까, 같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단 말이야.   |
| 듣는사람(여성) | 오~                                                                                  |
| 하루나(여성)  | 아, 그리고 그 사람이 요리를 잘해서 가끔 집에서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요리를 만들어 주기도 해.                             |
| 앤디(남성)   | 와- 좋겠다.                                                                             |
|          | ②                                                                                   |
| 앤디(남성)   | 우리 집은 아내도 나도 요리는 못 해서 식사는 거의 외식으로만 때우는데.                                            |
| 유스케(남성)  | 앤디네 부인은 일본 사람이었지?                                                                   |
| 앤디(남성)   | 응. 근데 청소는 좋아해. 깨끗한 걸 좋아해서 내 방이 조금만 어질러져 있으면, 바로 "자, 정리해요!" 라고 말하지.                  |
| 듣는사람(여성) | 오~                                                                                  |
| 하루나(여성)  | 꽤 셀 것 같은데.                                                                          |
| 앤디(남성)   | 응, 성격이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파워풀 해서 조금 무섭긴 한데, 뭐 밝고 활기 넘쳐서 그 점이 좋은 거 같아.                       |
| 유스케(남성)  | 흠.                                                                                  |
| 하루나(여성)  | 예예.                                                                                 |
| 앤디(남성)   | 그리고, 취미나 취향도 꽤 잘 맞기도 하고.                                                            |
| 듣는사람(여성) | 예를 들면?                                                                              |
| 앤디(남성)   | 예를 들면, 둘이서 먹으러 가도, 멋스럽고 로맨틱한 레스토랑은 둘 다 관심이 없어서 지저분해도 싸고 맛있는 곳을 좋아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잘 맞아. |
| 듣는사람(여성) | 그렇구나.                                                                               |
|          | ③                                                                                   |
| 유스케(남성)  | 맞아, 그런 가치관이 맞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
| 듣는사람(여성) | 가치관이라니?                                                                             |

|          |                                                                                                             |
|----------|-------------------------------------------------------------------------------------------------------------|
| 유스케(남성)  | 아,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하나....                                                                                     |
| 듣는사람(여성) | 아~.                                                                                                         |
| 유스케(남성)  | 먹는 것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같은 거랄까.                                                   |
| 듣는사람(여성) | 음~                                                                                                          |
| 유스케(남성)  | 우리 집 같은 경우엔 말이야, 배우자랑 같이 산지 벌써 20 년은 되니까, 이미 서로가 가족이라고 보다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됐을지도 몰라.                               |
| 앤디(남성)   | 그렇구나.                                                                                                       |
| 유스케(남성)  | 뭐, 둘 다 마이 페이스인(자유분방한) 성격이라 만약 취향이 안 맞는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그거 대로 괜찮다고 해야 하나.... 그런 무던한 부분이 오히려 안심이 돼.              |
| 듣는사람(여성) | 예를 들면?                                                                                                      |
| 유스케(남성)  | 예를 들면, 같이 영화관에 가서, 둘이 보고 싶은 영화가 다르면, "그럼, 이따 보자."<br>라고 말하고, 서로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지 말이야.<br>그런 무던한 부분이 오히려 안심이 돼. |
| 듣는사람(여성) | 그렇구나.                                                                                                       |
|          | ④                                                                                                           |
| 에미(여성)   | 휴~ 왠지 부럽다. 모두 행복해 보여서.                                                                                      |
| 하루나(여성)  | 응?                                                                                                          |
| 유스케(남성)  | 무슨 일 있어?                                                                                                    |
| 에미(여성)   | 어찌된 영문인지, 나 말이야,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아.                                                                     |
| 앤디(남성)   | 무슨 소리아 그게?                                                                                                  |
| 에미(여성)   | 우리 남편이 최근에 하는 일이 바뀌었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모양인지, 뭔가 되게 화를 잘 내는 것 같아.                                               |
| 듣는사람(여성) | 예를 들면?                                                                                                      |
| 에미(여성)   | 내가 친구와 밥을 먹고 좀 늦게 들어가면 "늦어!"라고 말하면서 언짢아 하거나, 그런 주제에 자기는 술에 취해 늦게 돌아와도 "사회생활을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라고 말하거나.      |
| 하루나(여성)  | 그래?                                                                                                         |
| 에미(여성)   | 원래 차근한 성격인데 좀 예민한 면이 있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금방 짜증을 내거든.                                                        |
| 듣는사람(여성) | 음.                                                                                                          |
| 에미(여성)   | 뭐, 천성이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

## PART 2 엄격하긴 해도 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군요

|         |                                            |
|---------|--------------------------------------------|
| 제인(여성)  | 히로코 씨,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
| 히로코(여성) | 뭔데?                                        |
| 제인(여성)  | 이즈카 선생님, 잘 알고 있어요?                         |
| 히로코(여성) | 응, 수업 몇 개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데, 왜?                |
| 제인(여성)  | 이번 3 학년이 되니까, 일본어 담당이 오쿠무라 선생님에서 이즈카 선생님이로 |

|         |                                                                                                                                     |
|---------|-------------------------------------------------------------------------------------------------------------------------------------|
|         | 됐어요. 이즈카 선생님은 무섭다고 할까, 어렵다고 할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
| 히로코(여성) | 아아, 확실히 오쿠무라 선생님 하고는 전혀 스타일이 다르지.                                                                                                   |
| 제인(여성)  | 네, 오쿠무라 선생님은 어느 쪽인가 하면, 선생님이라고 보다는 의지할 수 있는 선배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말하기도 쉽고 항상 웃고 있는 것 같아서.                                                 |
| 히로코(여성) | 그렇지. 나이도 비슷하고 소탈하지. 그에 비하면 이즈카 선생님은 조금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일지도 몰라.                                                                           |
| 제인(여성)  | 그리고 되게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리포트 마감에 늦으면 절대 안 받아 주거나, 수업 시작할 때 문을 잠그니까 선생님보다 늦게 오면 다시 교실에 못 들어가거나...                                        |
| 히로코(여성) | 아..                                                                                                                                 |
| 제인(여성)  | 이즈카 선생님께 학점을 받지 못해서, 운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
| 히로코(여성) | 확실히 이즈카 선생님은 그런 엄격한 면이 있지. 근데 그건 학생지도에 굉장히 열심이시기 때문인지도 몰라. 나 저번 학기에 이즈카 선생님 수업 듣고 레포트 냈는데 정말 꼼꼼하게 읽어주고, 정성스럽게 코멘트 줬어. 그 때는 정말 감동했지. |
| 제인(여성)  | 오, 그랬어요?                                                                                                                            |
| 히로코(여성) | 그리고, 학생이 성적이 나빠지거나 출석률이 떨어지거나 하면, 걱정해서 바로 말을 걸어 준대. 개인 지도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                                                            |
| 제인(여성)  | 그렇습니까? 엄격하긴 해도, 학생을 생각하시네요.                                                                                                         |
| 히로코(여성) | 뭐,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거지.                                                                                                                 |
| 제인(여성)  | 네, 다양한 선생님이 계시네요.                                                                                                                   |

### PART 3 매우 재밌는 사람이에요.

|           |                                                                                                     |
|-----------|-----------------------------------------------------------------------------------------------------|
| 와타나베 (남성) | 벨린다 씨, 레나 씨라고 아세요? 다음주부터 우리 팀에 들어오게 됐어.                                                             |
| 벨린다 (여성)  | 아. 알고 있어요. 전에 같이 일한적이 있어서                                                                           |
| 와타나베 (남성) | 어떤 사람 이에요?                                                                                          |
| 벨린다 (여성)  | 음.. 한마디로 하면 매우 재밌는 사람이에요. 발상도 유니크하고 그녀가 생각했던 투어는 항상 인기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 같은 재밌는 플랜이 들어가 있어서 |
| 와타나베 (남성) | 오호..                                                                                                |
| 벨린다 (여성)  | 밝고 일본어도 잘하고 그녀를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요.                                                                       |
| 와타나베 (남성) | 그래요?                                                                                                |
| 벨린다 (여성)  | 하지만, 조금 고집스러워서 어려운 면이 있으려나                                                                          |
| 와타나베 (남성) | 어려워?                                                                                                |
| 벨린다 (여성)  | 그러니까... 8 월 투어를 기획했을 때 인데요, 마침 그때 그녀의 기획이 통과되질 않아서... 그랬더니 갑자기 의욕이 없어져버렸던 것 같았어요.                   |
| 와타나베 (남성) | 그래요?                                                                                                |
| 벨린다 (여성)  | "다른 사람의 기획이지만 모두가 협력해서 해 나가자"라고 말했지만, 음... 처음에는 좀처럼 이해해 주질 않아서 좀 힘들었어요.                             |
| 와타나베 (남성) | 그런 일이 있었군요.                                                                                         |

|          |                                                                 |
|----------|-----------------------------------------------------------------|
| 벨린다(여성)  | 뭐, 마지막에는 열심히 해 주긴 했지만요. 하지만 어쨌든 아이디어가 많고 대화하면 즐겁고, 저는 그녀를 좋아해요. |
| 와타나베(남성) | 그래요? 같이 일하는 게 기대되네요.                                            |

## PART 4 서예로 소통을

|                                                                                                                                                                                          |
|------------------------------------------------------------------------------------------------------------------------------------------------------------------------------------------|
| 멜버른에서 생활하다                                                                                                                                                                               |
| "서예로 소통을" 서예 교사 하야시 유카                                                                                                                                                                   |
| 프로필<br>하야시 유카<br>나가노현출신. 초등학교 1 학년때부터 서예를 시작, 교사 자격 취득. 배우자의 전근에 따라 멜버른에 온 지 6 년째. 서예의 매력을 전하고 싶어, 4 년전에 자택에서 서예 교실을 시작.                                                                 |
| 유학에서의 경험으로 서예 교실을                                                                                                                                                                        |
| 하야시씨가 서예 교실을 시작하려고 생각한 것은, 고등학생 때 단기 유학을 했던 미국에서의 경험으로부터였다. 어렸을 적부터 서예를 배웠었던 하야시 씨는, 유학할 곳에도 서예 도구를 가지고 가서, 호스트 가족에게 붓으로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 그때, 호스트 가족이 굉장한 예술이라며 기뻐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
| "해외에서는, 서예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진다는 것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전근이 결정되고, 저는 호주에서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서예가 떠올랐던 거죠. "                                                                                    |
| 망설임부터 시작된 서예                                                                                                                                                                             |
| 서예 경력은 길고, 교사의 자격증도 가지고 있던 하야시 씨였지만, 본격적으로 서예를 가르치는 것은 처음. 게다가 상대는 외국인. 교실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왁자지껄 떠들면서 붓을 잡는 학생이나, 기분 내키는 대로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하는 학생들 때문에 망설였다고.                                       |
| "처음에는 긴장감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서예의 정신 같은 것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아서... 그래도, 이쪽의 사람들은 일본인 보다 훨씬 자유롭게 대담한 글자를 써요. 그 점을 중요하게, 어려운 부분은 빼고 먼저 붓을 잡으면 망설이지 않고 힘있게,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거야라고 전하도록 노력했죠" |
| 서예를 통한 교류                                                                                                                                                                                |
| 4 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문화를 다시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일본인이나 일본문화나 예술에 흥미가 있는 호주인 등, 학생은 다양각색. 최근에는 고향의 초, 중학교부터 출장수업도 부탁 받게 되었다고.                                                                           |
| "한 글자를 쓴 것만으로, 이미 분위기가 고조돼요. (웃음) 질문도 가지각색으로 나오고, 거기서부터 일본에 대해서도 펼쳐져요. 서예라는 것이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
| 자택에 죽 늘어선 학생들의 작품을 기쁜 듯 소개해 주는 모습에서부터 상냥하고 따뜻한 인품이 느껴졌다. 서예에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의욕적이다. 이제 부터의 활약이 기대된다.                                                                                  |

## PART 5 친구소개의 메일

|                                                      |
|------------------------------------------------------|
| 친구소개                                                 |
| 토모미 씨. 안녕하세요. 로라예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나요?               |
| 오늘은 토모미 씨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메일을 써요. 토니라고 하는 제 대학 때의 |

일본어학과의 동창이에요. 그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음악을 매우 좋아하고, 요전번에 만났을 때,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말했었어요.

그는 웹디자이너예요. 씩씩한 성격에 대화하기편하고, 항상 재밌는 말을 해 사람들을 웃게 해서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에요. 애니메이션이나 음악뿐만 아니라, 사이클링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야외 활동도 좋아한다고 하니, 활동적인 토모미와도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요.

괜찮으면, 다음에 셋이서 밥이라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답장기다리고 있을게요. 로라.

## Topic 2 후지산 등산

### PART 1 후지산보다 뛰어난 산은 없어

|          |                                                                                                                                                                                         |
|----------|-----------------------------------------------------------------------------------------------------------------------------------------------------------------------------------------|
| 듣는사람(남성) | 여름 방학에 일본에 가는데, 그 때 후지산에 오르고 싶거든요....                                                                                                                                                   |
| 듣는사람(남성) | 기노시타 씨는, 등산이 취미였지요? 후지산에 오른 적이 있나요                                                                                                                                                      |
|          | ①                                                                                                                                                                                       |
| 키노시타(남성) | 물론이지. 전부 합해서 네 번은 올랐나                                                                                                                                                                   |
| 듣는사람(남성) | 네 번! 굉장한데요.                                                                                                                                                                             |
| 키노시타(남성) | 후지산은 말이야, 독립봉이라 해서, 주변에 다른 산이 없는 산이야. 그래서 후지산에서 보는 경치는, 날씨가 맑으면 정말 굉장해. 남쪽은 이즈반도와 바다, 북쪽은 일본 알프스의 산들. 나도 여러 산을 올랐지만, 경치에 관해서는 후지산보다 뛰어난 산은 없다고 생각해.                                     |
| 듣는사람(남성) | 앗, 그게 무슨 뜻이죠?                                                                                                                                                                           |
| 키노시타(남성) | 후지산을 이길 산은 없다, 후지산에서 보는 경치가 으뜸이란 말이지                                                                                                                                                    |
| 듣는사람(남성) | 와~, 그렇게 대단해요?                                                                                                                                                                           |
| 키노시타(남성) | 응. 그리고, 하나 조언 하자면, 투어 같은 걸로 가서 오르면, 정상에 화구에 있는 신사까지 가면 그걸로 최종 골인이라고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후지산의 진정한 정상은 거기서 30 분 정도 더 올라가는 '켄가미네(剣ヶ峰)'라는 곳이야.<br>후지산에 올라서 3,776m 의 일본 최고점까지 가지 않는 건, 좀 아깝지. |
| 듣는사람(남성) | 아-                                                                                                                                                                                      |
| 키노시타(남성) | 그러니까 혹시 오른다면 꼭 '켄가미네(剣ヶ峰)'까지 가야 해.                                                                                                                                                      |
| 듣는사람(남성) | 아-                                                                                                                                                                                      |
|          | ②                                                                                                                                                                                       |
| 다무라(남성)  | 후지산이요? 저는 학생 때, 친구와 함께 올라갔어요. 근데, 왠지 그저 지쳤다는 추억밖에 없네요.                                                                                                                                  |
| 듣는사람(남성) | 그래요?                                                                                                                                                                                    |
| 다무라(남성)  | 일단 엄청 혼잡해서요. 저녁에 오르기 시작해서 도중에 8 부 능선의 산막에서 묵었는데요, 산막에 사람이 가득 차서 한 사람의 공간에서 네 명 정도가 잔 거 같아요. 자면서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다니까요.                                                                       |
| 듣는사람(남성) | 어,,,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
| 다무라(남성)  | 아-, 제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사람이 바싹 붙어 자고 있어서 몸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

|          |                                                                                      |
|----------|--------------------------------------------------------------------------------------|
| 듣는사람(남성) | 아~, 그렇게 붐벼요?                                                                         |
| 다무라(남성)  | 다음 날은, 정상을 목표로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등산로가 혼잡해서,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
| 듣는사람(남성) | 아~                                                                                   |
| 다무라(남성)  | 날씨도 안 좋고, 정상은 안개로 새하얗고. 게다가 엄청 추워서 힘들었어요.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정상에서 죽을 뻔 했어요.    |
| 듣는사람(남성) | 그렇게나 추운가요?                                                                           |
| 다무라(남성)  | 날씨가 좋았다면 달랐을 수도 있지만...                                                               |
| 키노시타(남성) | 그거 참 아쉽게 됐군.                                                                         |
| 다무라(남성)  | 그래도, 뭐 성취감은 있었지만요.                                                                   |
|          | ③                                                                                    |
| 아니타(여성)  | 저도 옛날에 일본에 갔을 때, 투어로 올라갔는데요, 일본의 등산은, 산을 내려온 뒤의 즐거움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게 좋지요.               |
| 듣는사람(남성) | 예를 들자면?                                                                              |
| 아니타(여성)  | 예를 들면, 온천. 산을 내려와서 그대로 곧장 산기슭에 있는 온천에 들어갈 수 있어요.                                     |
| 듣는사람(남성) | 오~.                                                                                  |
| 아니타(여성)  | 후지산 산기슭에도 온천이 몇 군데 있는데, 뜨거운 물에 여유롭게 몸을 담그고 쉬고 있으면, 등산의 피로가 풀리면서 아~, 극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 듣는사람(남성) | 저기, '극락'이란 게 어떤 의미인가요?                                                               |
| 아니타(여성)  | 음,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뜻이에요                                                 |
| 아니타(여성)  | 게다가 노천탕에서 조금 전까지 올랐던 후지산을 볼 수 있고                                                     |
| 듣는사람(남성) | 아-                                                                                   |
| 아니타(여성)  | 그리고 야마나시 명물인 '호토(ほうとう)'도 추천합니다.                                                      |
| 듣는사람(남성) | 호토(ほうとう)?                                                                            |
| 아니타(여성)  | 굵은 우동 비슷한 면을 된장으로 푹 끓인 건데, 지친 몸에 정말 스며드는 맛이에요. 혹시 후지산에 오른다면, 온천과 호토(ほうとう)를 꼭 체험해보세요. |
| 듣는사람(남성) | 알겠어요.                                                                                |
| 듣는사람(남성) | 여름 방학에 일본에 가는데, 그 때 후지산에 오르고 싶거든요....                                                |
|          | ④                                                                                    |
| 카토(여성)   | 나는 오른 적은 없지만, 대학생 때 테니스클럽 합숙이 매년 근처의 가와구치 호(河口湖)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변 정보라면 꽤 빠삭해.            |
| 듣는사람(남성) | 오~.                                                                                  |
| 카토(여성)   | 후지산은 역시 밑에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
| 듣는사람(남성) | 밑에서?                                                                                 |
| 카토(여성)   | 후지산이 있는 풍경은 우키요에(浮世繪)도 될 정도니까.                                                       |
| 듣는사람(남성) | 음~, 그게 무슨 뜻인가요?                                                                      |
| 카토(여성)   | 우키요에는 일본의 오래된 그림인데, 후지산은 자태가 아름다워서 옛날부터 우키요에에 많이 그려져 왔거든.                            |



|           |                                                                                             |
|-----------|---------------------------------------------------------------------------------------------|
| 카토(여성)    | 내 추천은 '고요다이(紅葉台)'라는 곳에서 보는 후지산.                                                             |
| 듣는사람(남성)  | 고요다이?                                                                                       |
| 카토(여성)    | 고요다이는 가와구치 호 주변에 있는 전망대인데, 산 위에 있어서 길은 좋지 않지만, 차라면 바로 근처까지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보는 후지산이 말야, 정말 최고라고 |
| 듣는 사람(남성) | 오~.                                                                                         |
| 카토(여성)    | 그야말로 시야의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전부 후지산일 정도로 크게 보이는데 그 밑에 일대가 울창한 삼림으로 펼쳐져 있는 것도 보여                      |
| 듣는 사람(남성) | 그런가요.                                                                                       |
| 카토(여성)    | 꽤 감동적이라서, 추천이야.                                                                             |

## PART 2 역시 해돋이는 보고 싶어

|          |                                                                                                                                |
|----------|--------------------------------------------------------------------------------------------------------------------------------|
| 야마자키(남성) | 그럼, 어떤 스케줄로 올라갈까? 열심히 하면, 하루 만에 못 올라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
| 김(남성)    | 코스타임은 오르내리는 것을 합해 약 10 시간인가.응, 그 정도면 하루만에 올라갈까? 그러면 다음 날 여러 가지 놀 수 있고                                                          |
| 박(남성)    | 근데... 지인이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피곤해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막에서 묵는 코스로 하지 않겠습니까?                                                                |
| 야마자키(남성) | 산장숙박이라면, 흔히 있는 패턴은, 점심 지나서 오르기 시작해서, 8부 능선 산장에서 자고, 한밤중에 일어나 오르기 시작해, 산정상에서 해돋이를 보는 코스인데, 그렇게 할래?                              |
| 박(남성)    | 좋은 것 같아요.                                                                                                                      |
| 김(남성)    | 그럼 그 스케줄로 갈까? 해돋이는 역시 보고 싶네요.                                                                                                  |
| 야마자키(남성) | 그럼, 산막에서 묵는 코스로 결정이네. 나중에 예약 할게.                                                                                               |
| 박(남성)    | 아, 그리고 켄가미네는 꼭 갑시다. 후지산에 올라가게 되면 일본 최고점까지 가지 않을 수 없겠죠?                                                                         |
| 김(남성)    | 물론. 그것은, 갈 수밖에 없지.                                                                                                             |
| 야마자키(남성) | 그래, 모처럼 오르는 거잖아. 그러면 이 스케줄이라면 아마 오전 중에는 하산 할 수 있을 텐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지?                                                            |
| 김(남성)    | 렌터카 빌려서 산기슭의 관광지를 도는 건 어때? 하산 후에는 곧 온천에도 가고 싶고                                                                                 |
| 박(남성)    | 좋네요.                                                                                                                           |
| 야마자키(남성) | 오케이. 그럼 렌터카 빌리고, 온천 가고, 관광지 돌고...어,음. 신주쿠행 막차가 가와구치호 8시 지나서니까, 한나절 정도는 놀 수 있겠네.                                                |
| 김(남성)    | 음-, 가고 싶은 곳은 여러 군데야. 온천에 느긋하게 들어가서, 호토 먹고, 그리고 「바람굴」이나 「얼음굴」 관광지도 보고 싶고, 「단풍대」나 전망대도 가고 싶고...바로 돌아가는 것은 아까우니까, 역시 1박 더 묵지 않을까? |
| 박(남성)    | 찬성. 묵는 편이 느긋하게 놀 수 있으니까요. 근처에 엄청난 절규머신이 있는 유원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갑시다.                                                             |
| 김&야마자키   | 에~                                                                                                                             |

**PART 3 누구라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         |                                                                                                              |
|---------|--------------------------------------------------------------------------------------------------------------|
| 위라(남성)  | 사사키 씨, 어딘가 가시나요?                                                                                             |
| 사사키(여성) | 네. 타만네가라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떨까요?                                                                               |
| 위라(남성)  | 아. 타만네가라요. 가신 적이 없으면, 한번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음... 무엇보다 세계에서 최고의 오래된 정글 중 하나니까요.                                    |
| 사사키(여성) | 그런가요?                                                                                                        |
| 위라(남성)  | 자연을 좋아하시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정글에 갈 때에 타는 보트에서 보는 경치라든지 또... 높은 나무 위의 흔들다리를 걷는 캐노피 워크라든지 누구라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
| 사사키(여성) | 아하..                                                                                                         |
| 위라(남성)  | 새울음소리를 듣거나, 희귀한 식물을 보거나, 음... "자연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 사사키(여성) | 좋네요.                                                                                                         |
| 위라(남성)  | 하지만, 혹시 호랑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정글에 사는 동물을 보고싶다면, 별로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항상 나오는 건 아니니까.                                    |
| 사사키(여성) | 그렇군요..                                                                                                       |
| 위라(남성)  | 게다가, 동물을 보기 위해서는 밤에 가이드와 함께 나가서 음... 정글 안에 있는 오두막에서 계속 기다린답니다.                                               |
| 사사키(여성) | 아하..                                                                                                         |
| 위라(남성)  | 하지만, 거기에는 전등도 없고, 게다가 벌레도 많아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좀 난감할지도 몰라요.                                                       |
| 사사키(여성) | 그래요? 하지만 그런 체험도 재밌을 것 같네요.                                                                                   |

**PART 4 사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후지고코**

|                                                                                                                                                                                                                                                     |
|-----------------------------------------------------------------------------------------------------------------------------------------------------------------------------------------------------------------------------------------------------|
| 4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후지고코의 추천명소 특집                                                                                                                                                                                                                        |
| 자연 속에서 놀자!                                                                                                                                                                                                                                          |
| 코요다이 후지산을 볼거면 여기                                                                                                                                                                                                                                    |
| 후지산의 대표적인 경치명소. 1164 미터의 휴게소 전망대부터는 360 도의 큰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후지산을 보면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몸도 마음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건 틀림없다. 코요다이 라는 이름처럼, 가을에는 아름답게 단풍이 든 숲을 볼 수 있다. 산기슭의 버스정류장에서 전망대까지는 도보로 25 분정도의 코스. 여름에는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전망대는 차로도 갈 수 있지만,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운전예 주의. |
| 후지텐 리조트 후지산을 보며 스포츠를 만끽                                                                                                                                                                                                                             |
| 후지산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스키장. 넉넉하게 탈 수 있는 패밀리 코스나 최대 경사 32 도의 내리막길 코스 등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OK. 스키나 스키복은 대여가능. 눈이 없는 여름에는 여름스키장에서 스키, 스노보드를 할 수 있는 것 외에, 산악자전거 등 아웃도어 레저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 후지산이 보이는 센터하우스 2 층에는, 바비큐도 가능(예약필수)                                            |
| 야마나카호 하나노미야코 공원 후지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고원의 꽃밭                                                                                                                                                                                                               |
| 약 30 만제곱미터나 되는 넓이를 자랑하는 공원. 봄에는 튜립, 여름에는 해바라기,가을은                                                                                                                                                                                                   |

코스모스와, 후지산을 배경으로 4 계절마다의 꽃이 핀다. 꽃이 피는 상황을 체크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유료 구역인 온실에서는 희귀한 열대식물이나 각양각색의 꽃을 1 년내내 볼 수 있다. 꽃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놀이도구를 사용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겨울에는 일루미네이션도 아름답다.

나루사와 얼음굴 신비의 세계에서 서늘한 경험

화산의 분화로 생긴 수혈동굴. 용암터널을 빠져나와 지하 21 미터까지 내려가면, 고드름을 볼 수 있다. 하얗게 빛나는 고드름이 죽 늘어서 있는 모습은 환상적. 고드름은 거의 1 년내내 볼 수 있지만, 가장 커지는 것은 의외로 겨울이 아닌 봄부터 여름. 동굴 안에는 1 년내내 0-3 도 유지되어 있기때문에, 냉장고 대신에 사용된 시대도 있었다. 여름에도 겉옷이 필요. 미끄러지기 쉽게 때문에 걸기 편한 신발이 있으면 안심.

**PART 5 A place I recommend is ...**

5. 추천하는 명소는..

추천 명소를 알려 주세요!

00 씨 잘 지내시나요? 여기는 최근에 일이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올해 여름휴가는 00 에 가기로 했어요. 지금 여행 책자를 보면서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재미있어 보이는 곳이 많아서, 어디에 갈지 망설이고 있어요. 부디 00 씨의 추천 명소를 알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또 연락할게요.

**Topic 3 건강한 생활**

**PART 1 워킹이 좋지 않나요 ?**

|          |                                                                                 |
|----------|---------------------------------------------------------------------------------|
| 듣는사람(남성) | 요즘, 좀 운동 부족이라...뭔가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뭐 추천할 거 없나요?                                   |
|          | ①                                                                               |
| 히라노(남성)  | 운동이요? 그럼 스포츠클럽에 다니는 게 정석 아닌가요. 역 앞 헬스장, 거기, 저도 회원이니까, 들어갈 거라면 소개할게요.            |
| 듣는사람(남성) |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데이?                                                                |
| 히라노(남성)  |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러닝머신에서 뛰거나...아, 요즘은 가끔 스튜디오 프로그램에도 나가는데, 꽤 재밌어요.              |
| 듣는사람(남성) |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라 하시면, 예를 들어?                                                         |
| 히라노(남성)  | 제가 좋아하는 건, '바디 컴뱃'이라고 해서, 킥복싱이나 가라테의 움직임을 하면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
| 듣는사람(남성) | 오~.                                                                             |
| 히라노(남성)  | 평범한 에어로빅과 달리 기합이 들어가니까, 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버려요. 그래서 끝나면 땀이 줄줄 나서 운동 많이 했다란 느낌이 들어요.   |
| 듣는사람(남성) | 오~ 그거 재밌어 보이네요.                                                                 |
| 히라노(남성)  | 그 밖에도, 줌바라든가.....                                                               |
| 듣는사람(남성) | 줌바?                                                                             |
| 히라노(남성)  | 아~, 댄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가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으니 한 번 견학하러 가 보는 게 어때요?                         |
|          | ②                                                                               |

|          |                                                                                                                            |
|----------|----------------------------------------------------------------------------------------------------------------------------|
| 시미즈(여성)  | 근데, 별로 지금까지 운동한 적이 없다면, 우선 워킹이 좋지 않나요?                                                                                     |
| 듣는사람(남성) | 어, 걷는 건가요?                                                                                                                 |
| 시미즈(여성)  | 네, 워킹 같은 건 별로 운동이라는 느낌이 안 들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몸에 좋아요. 게다가 운동신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
| 듣는사람(남성) | 그러네요.                                                                                                                      |
| 시미즈(여성)  | 유산소 운동이기도 하고요.                                                                                                             |
| 듣는사람(남성) | 유산소..., 그건, 어떤 운동인가요?                                                                                                      |
| 시미즈(여성)  | 아~, 러닝이라든지, 지방을 천천히 태우는 것 같은 운동을 말해요.                                                                                      |
| 듣는사람(남성) | 아~.                                                                                                                        |
| 시미즈(여성)  | 워킹은 러닝과 달라서, 다칠 위험이 적고, 그리고 밖을 걷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아침에 근처 공원을 워킹한 날은 기분이 상쾌하답니다.                                          |
| 듣는사람(남성) | 오~, 기분 좋을 거 같네요.                                                                                                           |
| 시미즈(여성)  |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걸으면 친구도 생겨서 좋아요                                                                                 |
|          | ③                                                                                                                          |
| 오니시(남성)  | 그리고 보니, 실은 라디오 체조가 의외로 효과가 높다는 거 아세요?                                                                                      |
| 듣는사람(남성) | 라디오 체조요? 들어본 적 없는데요....                                                                                                    |
| 오니시(남성)  | 라디오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체조하는 건데, 일본인이란면 누구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나. 저도 초등학교 때, 여름 방학에 매일 아침 공원에 모여서 억지로 했어요.                                  |
| 히라노(남성)  | 했지, 했지.                                                                                                                    |
| 시미즈(여성)  | 그립다.                                                                                                                       |
| 오니시(남성)  | 근데, 사실 그게 여러 동작이 들어 있어서, 온몸이 균형 있게 단련된다고 해요.                                                                               |
| 듣는사람(남성) | 오~.                                                                                                                        |
| 오니시(남성)  | 스트레칭 요소도 들어 있어서 몸이 유연해지고, 변비에도 효과가 있대요.                                                                                    |
| 민(여성)    | 정말일까.                                                                                                                      |
| 오니시(남성)  | 체조에는 제 1 과 제 2 가 있는데, 둘 다 해도 겨우 6 분 30 초면 끝나니까, 매일 계속하기에도 좋답니다.                                                            |
| 듣는사람(남성) | 오~, 그거 좋을 거 같네요.                                                                                                           |
| 오니시(남성)  | 저도 집에서 YouTube 보면서 하고 있어요.                                                                                                 |
|          | ④                                                                                                                          |
| 민(여성)    | 집에서 가능한 운동이라면, 저 요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복근 롤러라는 것을 샀어요.                                                                             |
| 히라노(남성)  | 아-, 그거 알아.                                                                                                                 |
| 듣는사람(남성) | 뭔데요? 그게.                                                                                                                   |
| 민(여성)    | 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바퀴?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 음... 옆드려서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그대로 바퀴를 데굴데굴 굴리면서 몸을 폼을 폼다, 거기서 다시 몸을 굽혀서 데굴데굴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
| 듣는사람(남성) | 아~.                                                                                                                        |
| 민(여성)    | 보기엔 간단할 것 같은데, 실은 굉장히 복근에 효과가 있어요.                                                                                         |

|          |                                                                                                 |
|----------|-------------------------------------------------------------------------------------------------|
| 듣는사람(남성) | 복근?                                                                                             |
| 오니시(남성)  | 배 근육.                                                                                           |
| 민(여성)    | 그래서, 몇 번 데굴데굴 굴리는 것만으로,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처음 할 때는, 세 번 정도밖에 못 했는데, 다음날, 복근이 엄청 아파서 웃기만 했는데도 죽을 뻔했어요. |
| 듣는사람(남성) | 그거, 굉장하네요.                                                                                      |
| 민(여성)    | 요즘엔 거의 익숙해졌어요. 장소를 차지하지 않으니까 방에서 할 수 있고, 간편하잖아요. 좋아요.                                           |

## PART 2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         |                                                                                                             |
|---------|-------------------------------------------------------------------------------------------------------------|
| 사우레(여성) | 어, 마도카, 점심 그거뿐이야? 무슨 일이야?                                                                                   |
| 마도카(여성) | 아, 응, 사실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
| 사우레(여성) | 다이어트? 왜?                                                                                                    |
| 마도카(여성) | 응, 이제 곧 여름이고, 앞으로 얇게 입겠지? 그래서 지금 살을 좀 빼볼까 해서.                                                               |
| 사우레(여성) | 오~. 그래서, 어떤 다이어트 하고 있어?                                                                                     |
| 마도카(여성) | 음, 아침밥은 생략하고 점심은 사과만. 그래서 저녁은 샐러드를 조금 먹거나, 그런 식이야.                                                          |
| 사우레(여성) | 음, 그건 좋지 않아. 특히 아침을 안 먹다니 안 돼. 건강해지기는커녕 몸 망가져 버려.                                                           |
| 마도카(여성) | 엇, 그래?                                                                                                      |
| 사우레(여성) | 게다가 야채랑 과일만 먹는 것도 몸에 안 좋아. 잘 먹어야지. 빵이나 밥이나 뭐 그런 거.                                                          |
| 마도카(여성) | 탄수화물?                                                                                                       |
| 사우레(여성) | 그래, 탄수화물. 그리고 계란이나, 우유 같은 단백질도.                                                                             |
| 마도카(여성) | 근데, 그렇게 먹으면, 다이어트 안 되잖아?                                                                                    |
| 사우레(여성) | 중요한 건, 영양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칼로리를 줄이는 거야. 그리고 운동하고 있어?                                                          |
| 마도카(여성) | 아니. 그다지...                                                                                                  |
| 사우레(여성) | 운동도 해야 해. 수영이나, 워킹이라든지. 유 어찌구 하는 운동                                                                         |
| 마도카(여성) | 유산소 운동? 응, 사실 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시간도 없고 시작할 계기도 없고.                                                    |
| 사우레(여성) | 하지만, 마도카는 전혀 뚱뚱하지도 않고, 다이어트 따위는 필요 없지 않아? 왜 일본 여자는 그렇게 체중을 줄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걸까. 나는 너무 마르지 않는 편이, 건강하고 이미지 좋은데. |
| 마도카(여성) | 그래? 사실 다이어트 시작한 지 3 일째인데 벌써 배가 고파서...전혀 머리도 돌지 않고, 슬슬 한계일지도. 좋아, 빵 사오자.                                     |

## PART 3 병의 원인을 없애 준답니다.

|          |                                       |
|----------|---------------------------------------|
| 카몰라(여성)  | 오카모토 씨, 뭐하고 있어요?                      |
| 오카모토(여성) | 대나무 발지압이요. 이렇게 밟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의 피로도 |

|          |                                                                                                             |
|----------|-------------------------------------------------------------------------------------------------------------|
|          | 풀린답니다.                                                                                                      |
| 카몰라(여성)  | 와. 처음 봤어요. 가지고 온 거예요?                                                                                       |
| 오카모토(여성) | 네. 카몰라 씨는, 뭔가 좋은 건강법, 알고 있나요?                                                                               |
| 카몰라(여성)  | 글쎄요...우즈베키스탄에는 연기를 씹는 건강법이 있어요.                                                                             |
| 오카모토(여성) | 연기요?                                                                                                        |
| 카몰라(여성)  | "이스리크"라고 하는 풀을 사용하는데요, 음..사막에서 자라나는 약초예요. 그 풀을 약간 말리고나서 태워서, 그 연기를 씹는거죠.                                    |
| 오카모토(여성) | 그래요?                                                                                                        |
| 카몰라(여성)  | 그리고..이 연기가 몸에 좋거든요. 감기 예방도 되고, 병이 되 버렸을 경우에 이 연기를 마시면 병의 원인이 없애 준답니다.                                       |
| 오카모토(여성) | 와..처음 들었어요.                                                                                                 |
| 카몰라(여성)  | 실은, 저는 냄새를 싫어해서 별로 안 하지만, 아. 시어머니는 겨울이 되면 자주 이스리크를 집에서 태워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 병 걸리지 말라고, 항상 그 연기를 아이에게 덮어 주시죠. |
| 오카모토(여성) | 오호..                                                                                                        |
| 카몰라(여성)  | 그리고 이스리크는 병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
| 오카모토(여성) | 그래요?                                                                                                        |
| 카몰라(여성)  | 남편이 새 차를 샀을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어머니가 이스리크를 작은 봉투에 담아서, 차안에 매달아 주셨어요.                                               |
| 오카모토(여성) | 그렇군요.                                                                                                       |
| 카몰라(여성)  | 최근엔 이런 오래된 건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
| 오카모토(여성) | 흠.재밌는데요.                                                                                                    |

#### PART 4 정말 효과가 있을까?

|                                                                                                                                                                                                                                                                                                                                                                                                                                                                                                |
|------------------------------------------------------------------------------------------------------------------------------------------------------------------------------------------------------------------------------------------------------------------------------------------------------------------------------------------------------------------------------------------------------------------------------------------------------------------------------------------------|
| <p>깡끼니루 라는 거, 효과 있어?</p> <p>1.</p> <p>요즘 피곤이 풀리지 않아서, 왠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모연구소의 깡끼니루이라고 하는 건강식품을 추천 받았어. 몸에 좋다고는 들었지만, 상당한 양을 사서 계속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이런 거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꽤 비싸서 망설이는 중.</p> <p>2.</p> <p>"좀 편해졌다." 라고 느끼는 건 있을 지도 몰라. 하지만 "이걸 먹고 있어서 괜찮아"라는 정신적인 면이 클 것 같은 생각이 듬.</p> <p>3.</p> <p>깡끼니루 알고 있어! 먹어봤더니, 조금은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꼭 추천 드려요!</p> <p>4.</p> <p>사장이 왔나봐!!!</p> <p>5.</p> <p>그거, 다단계 같은데. 네가 그 제품을 사면, 그 친구에게 돈이 생기는 시스템. 예전에 내 지인도 해서, 진짜 비싼 제품을 끈질기게 추천 받았지.</p> <p>6.</p> |
|------------------------------------------------------------------------------------------------------------------------------------------------------------------------------------------------------------------------------------------------------------------------------------------------------------------------------------------------------------------------------------------------------------------------------------------------------------------------------------------------|

|                                                                                                     |
|-----------------------------------------------------------------------------------------------------|
| 전에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 저런 거 돈낭비야.                                                               |
| 7.                                                                                                  |
| 몸에 좋다라든지 들으면, 금방 달려드는 게 일본인의 나쁜 습관이지.TV 에서 "낫또가 좋아"라고 방송되면, 다음 날 슈퍼에서 낫또가 없어지거나 한다든지 진짜 말도 안돼.      |
| 8.                                                                                                  |
| 건강식품 붐이라고 하면, 홍차키노코 라는 게 인기가 있었지. 엄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마셨던 의문의 음료...                                      |
| 9.                                                                                                  |
| 쇼와태생 발겨어어언!!!!                                                                                      |
| 10.                                                                                                 |
| 피라미드 식이면, 확실히 건강식품 같은 그런 수상한 것들이 많지. 암이라든지 큰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걸 먹으면 나아"라고 약점을 이용해서 비싼 상품을 강매하거나.        |
| 11.                                                                                                 |
| 애초에 건강식품에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잘못. 그런 걸 먹을 정도라면 그만큼 좋은 식사를 해.                                                 |
| 12.                                                                                                 |
| 성분 보면 알 거 같은데, 이건 결국 단순한 비타민제야. 효능이 없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컨디션이 안 좋은 원인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한번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 |
| 13.                                                                                                 |
| 건강 진단하러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은 제가 지나칩니다.                                                                  |

**PART 5 세계의 건강법**

|                                                                                                                                       |
|---------------------------------------------------------------------------------------------------------------------------------------|
| 질문: 세상에는 어떤 건강법이 있는가?                                                                                                                 |
| 요전번 TV 를 보고 있었더니, 세계의 건강법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감기 예방에는 생마늘을 먹는다는 "왜?"라고 생각할 유니크한 건강법이 여러 가지 있어서, 매우 흥미를 가졌어요. 부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나라의 건강법을 알려주세요. |
| 답: 모두의 답장                                                                                                                             |
|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에는, 약초를 사용한 건강법이 있어요. 약초는 이슬리크라고 하는데, 사막에서 많이 자라요. 그 풀을... 이어서 읽기                                                         |
| 요전번, 인터넷에서 사우나를 한 뒤에 눈 위에서 자는 건강법을 봤어요. 핀란드 사람은 사우나를 너무 좋아해서, 사우나에서 몸을 덥힌 후에 밖에서....이어서 읽기                                            |

**Topic 4 무대를 본다면**

**PART 1 가부키 , 좋네요.**

|          |                                                                                                      |
|----------|------------------------------------------------------------------------------------------------------|
| 케리(여성)   | 이번 일본 여행 때 가부키를 볼까 하는데 어떤가요? 가부키는.                                                                   |
|          | ①                                                                                                    |
| 키타무라(여성) | 가부키, 좋죠. 꼭 가서 보세요. 저는 몇 번이나 갔지만, 가부키는 정말 즐기는 방법이 다양해요. 의상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이걸 정말 보고 있으면 예쁘고, 무대 장치도 재밌어요. |
| 케리(여성)   | 무대 장치가 뭐예요?                                                                                          |

|          |                                                                                          |
|----------|------------------------------------------------------------------------------------------|
| 키타무라(여성) | 가부키는 무대가 빙 돌도록 만들어져서 말이죠, 건물의 바깥쪽이었던 무대가 빙글 돌아서 금세 건물 안쪽으로 변하고는 한답니다.                    |
| 케리(여성)   | 와~, 그거, 굉장하네요.                                                                           |
| 키타무라(여성) | 그리고 음악도 좋아요. 여러가지 일본 악기를 사용하는데, 바람 소리, 바다의 파도 소리, 게다가 눈 소리까지, 가부키에서는 북으로 표현한답니다.         |
| 케리(여성)   | 와~, 눈 소리까지!                                                                              |
| 키타무라(여성) | 게다가 배우의 연기에도 독특한 몸짓이 있어서 재밌어요. 가부키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연기하는데, 정말 두근거릴 정도로 여성스러워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
| 케리(여성)   | 와~.                                                                                      |
| 키타무라(여성) | 지금은,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으니, 가기전에 스토리나 볼거리를 조사해 두면 2 배, 3 배는 더 즐길 수 있을 거예요                  |
|          | ②                                                                                        |
| 노구치(남성)  | 아, 가부키요? 한 번 보러 간 적은 있지만, 저는 좀 별로였어요. 일단 길었어요.                                           |
| 케리(여성)   | 길어요?                                                                                     |
| 노구치(남성)  | 다 해서 네 시간 정도였나. 게다가 제가 본 건 연기에 움직임이 별로 없고, 계속 대사 뿐이어서 즐렸어요.                              |
| 키타무라(여성) | 뭐~, 보는 공연에 따라 다르겠지.                                                                      |
| 노구치(남성)  | 그리고, 대사도 에도시대 말이라서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어폰 가이드를 빌렸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고. 춤은, 뭐 예뻐지만요.                |
| 케리(여성)   | 그런가요.                                                                                    |
| 노구치(남성)  | 그리고 보니, 전통적인 가부키랑은 다른, 슈퍼 가부키라는 새로운 타입의 가부키가 있는데, 그건 동작도 있고, 연출도 화려하대요.                  |
| 케리(여성)   | 오~                                                                                       |
| 노구치(남성)  | 대사도 이해하기 쉽다고 하니까, 그쪽이 좋지 않을까요.                                                           |
|          | ③                                                                                        |
| 스기모토(여성) | 아~, 슈퍼 가부키라면,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일본에는 가부키 말고도 좋은 게 여러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카라즈카(宝塚) 라고 아세요? |
| 케리(여성)   | 다카라즈카? 아니요                                                                               |
| 스기모토(여성) | 가부키는 배우가 모두 남성이고 여성 역도 남성이 연기하지만, 다카라즈카는 반대로 배우가 모두 여성이고 남성 역도 모두 여성이 연기한답니다.            |
| 케리(여성)   | 오~                                                                                       |
| 스기모토(여성) | 그리고 여성이 연기하는 남성이 정말 근사하고 멋져 서 한 번 보면 무조건 바로 팬이 될 거예요                                     |
| 케리(여성)   | 그런가요?                                                                                    |
| 스기모토(여성) | 그리고, 스토리도 드라마틱해서 지루하지 않고, 노래나 춤도 있는데 이게 또 화려하고 예뻐요.                                      |
| 케리(여성)   | 오~                                                                                       |
| 스기모토(여성) | 이것도 일본이 자랑할 만한 무대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
| 케리(여성)   | 그래요?                                                                                     |
| 스기모토(여성) | 가부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티켓을 구할 거면                                                    |



|          |                                                                                        |
|----------|----------------------------------------------------------------------------------------|
|          | 도와드릴 테니 말씀하세요.                                                                         |
|          | ④                                                                                      |
| 타카기(남성)  | 뭔가, 가부키에서 다카라즈카라니... 엄청난 비약이네요. 그럼, 차라리 만담(お笑い) 같은 건 어때요?                              |
| 케리(여성)   | 만담?                                                                                    |
| 타카기(남성)  | 여행은 간사이로도 가죠? 간사이 하면 만담이죠.                                                             |
| 케리(여성)   | 아~                                                                                     |
| 타카기(남성)  | 가장 추천하는 것은, 신희극(新喜劇)이에요.                                                               |
| 케리(여성)   | 신희극?                                                                                   |
| 타카기(남성)  | 뭐~ 개그가 중심인 연극인데요, 오사카 난바의 극장에 가면 매일 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
| 케리(여성)   | 음~.                                                                                    |
| 타카기(남성)  | 매번, 반드시 좀 눈물짓게 만드는 플롯(구성)이 들어 있어서, 그야말로 웃다가 울다가 해요.                                    |
| 케리(여성)   | 아-, 그런가요....                                                                           |
| 타카기(남성)  | 이 보케(ボケ, 바보 같은 역할)와 츗코미(ツッコミ, 핀잔을 주는 역할)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일본 문화 전문가예요. 꼭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
| 키타무라(여성) | 잠깐, 가부키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

## PART 2 즐길 수 있을 거예요

|          |                                                                                                                   |
|----------|-------------------------------------------------------------------------------------------------------------------|
| 이마이(남성)  | 카타리나 씨, 카타리나 씨는 꽤 클래식을 좋아하신다면서요?                                                                                  |
| 카타리나(여성) | 네. 왜 그러세요?                                                                                                        |
| 이마이(남성)  | 사실 독일에 있는 동안 한 번, 본고장 오페라에 가보고 싶어서요.                                                                              |
| 카타리나(여성) | 아, 좋군요.                                                                                                           |
| 이마이(남성)  | 그래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만.                                                                                         |
| 카타리나(여성) | 물론이죠,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
| 이마이(남성)  | 음, 오페라 티켓을 어떻게 사요? 극장 창구에 가서 사는 게 좋을까요?                                                                           |
| 카타리나(여성) | 티켓팅요? 그러네요, 극장에서 사면 쉽고 빠르지만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어요. 자리도 고를 수 있고요.                                                         |
| 이마이(남성)  | 그래요. 하지만 상연 목록 같은 것도 잘 몰라서요.                                                                                      |
| 카타리나(여성) | 상연 목록도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좀 알아보을까요? (키보드 조작음 삽입) 음, 이번 달은 전반이 카르멘, 후반이 바그너의 발퀴레네요.                                 |
| 이마이(남성)  | 아, '카르멘' 알아요.유명하죠. 하지만 모처럼 독일에 왔으니까, 독일 오페라가 좋을 것 같아요.                                                            |
| 카타리나(여성) | 그렇죠, 이런 것은 역시 지역 고유의 작품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발퀴레라면 좀 길지만 음악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스토리가 좀 복잡해서 미리 연습하시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
| 이마이(남성)  | 그렇군요. 그런데 티켓은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극장 창구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카타리나(여성) | 그래도 좋지만, 종이 티켓을 받는 대신 집에서 바코드를 인쇄해서 가져가면                                                                          |

|          |                                                                                                                                                        |
|----------|--------------------------------------------------------------------------------------------------------------------------------------------------------|
|          | 그대로 티켓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
| 이마이(남성)  | 아, 편리하군요. 아, 그리고 오페라에 갈 때는 모두 잘 차려 입고 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
| 카타리나(여성) | 복장이요? 글썄요, 뭐, 지역에 따라서는 모두 드레스를 입거나 예복을 입는 곳도 있지만, 켈른은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네요. 젊은 사람은 꽤 러프한 차림의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뭐, 기왕이면 넥타이 정도 하고 가시면 주위의 분위기에 동화되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
| 이마이(남성)  |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넥타이 사야겠다.                                                                                                                             |

### PART 3 시내의 극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        |                                                                                                                                            |
|--------|--------------------------------------------------------------------------------------------------------------------------------------------|
| 남(남성)  | 금요일 밤에요, 일 끝나고 "수상인형극"으로 모실게요.                                                                                                             |
| 오노(여성) | 수상인형극이요?                                                                                                                                   |
| 남(남성)  | 네, 물 위를 무대로 하고, 거기서 하는 인형극이에요.                                                                                                             |
| 오노(여성) | 어머. 물 위에서.                                                                                                                                 |
| 남(남성)  | 작은 인형이 예쁜 의상을 입고 춤추거나, 거북이나 용이 물 속에서 나오거나 한답니다.                                                                                            |
| 오노(여성) | 와..                                                                                                                                        |
| 남(남성)  | 사실, 무대 뒤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허리까지 물에 잠겨서 인형을 움직이고 있답니다.                                                                                       |
| 오노(여성) | 와..                                                                                                                                        |
| 남(남성)  | 지금으로 1000 년이상도 전에, 베트남 북부의 농촌에서 시작됐는데, 음..원래는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었나봐요. 옛날에는 시골의 축제에서밖에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시내에 극장이 있어서, 거기서 볼 수 있어요.                  |
| 오노(여성) | 그래요?                                                                                                                                       |
| 남(남성)  | 그리고 스토리는 베트남의 민화나 농촌의 생활이 바탕이 돼서, 뭐라고 해야 할까... 소박하고 이해하기 쉬워요. 1 시간에 짧은 이야기가 10 개 이상 있어서 다양하고 질리지 않고...게다가 대사도 적어서 베트남어를 몰라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
| 오노(여성) | 아..                                                                                                                                        |
| 남(남성)  | 악기 연주를 들으면서 인형의 움직임을 보는 것 만으로도 즐거워요.                                                                                                       |
| 오노(여성) | 와. 정말 그건 기대되네요.                                                                                                                            |

### PART 4 매우 엄격한 세계인거죠.

|                                                                                                                                                                                         |
|-----------------------------------------------------------------------------------------------------------------------------------------------------------------------------------------|
| 타카라즈카에 들어가고 싶은 중학교 2 학년 여학생입니다!                                                                                                                                                         |
| sochan27221 씨. 타카라즈카에 들어가고 싶은 중학교 2 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전번 처음으로 타카라즈카를 보러 갔더니 주인공 남성 역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하고 동경하고 있어요. 저라도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발레라든지 노래라든지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될 수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
| 베스트 답으로 뽑힌 답변                                                                                                                                                                           |
| y2etmics2 씨. 타카라젠느 (다카라즈카의 사람을 뜻합니다)이 될 수 있는 건, 타카라즈카 음악학교 졸업생뿐입니다. 타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입시는 매년 3 월에 있습니다만, 응모                                                                                   |

자격이 있는 건 중학교 졸업 후인 15 세 부터 18 세까지뿐입니다. 경쟁률이 20 배 이상 "동쪽의 동경대, 서쪽의 타카라즈카"라고 말해질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문 학교를 거치고 발레나 노래를 하지 않으면 거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 년간 엄격한 레슨을 받고 졸업한 사람만이 타카라즈카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주인공을 하고 있는 남성역할은 톱스타라고 불립니다. 톱스타가 된다는 건 정말로 힘들답니다. 타카라즈카에는 5 개의 조가 있어서, 조마다 공연이 있습니다만, 톱스타는 각 조에 한 명 밖에 없습니다. 보통, 연극이든지 뮤지컬이든 먼저 공연 작품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캐스팅을 하죠? 하지만 타카라즈카는 다릅니다. 톱스타에 맞춰서 상연하는 공연 작품을 고르고, 톱스타가 빛날 수 있도록 연출을 한답니다. 타카라즈카의 매력은 톱스타의 매력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성이 남성을 연기한다는 것은 어렵고, 대부분의 톱스타는 타카라즈카 음악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톱스타가 되기까지 십 수년은 걸립니다. 재능이나 얼굴과 몸이 타고나서, 젊을 때 장래유망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긴 시간 동안 노력해서 겨우 될 수 있었던 것이 톱스타인거죠. 타카라젠느는 길고 긴 길을 지나, 간신히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거랍니다. 게다가 톱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극히 적은 사람들뿐입니다. 매우 엄격한 세계랍니다.

당신이 톱스타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되고 싶은 거라면, 이런 곳에서 질문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 PART 5 꼭 참가해주세요!

수상인형극 보러 가지 않겠어요?

일본문화센터 일본어 중급 반의 멤버와 수상인형극을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베트남의 전통문화를 같이 느껴봐요!

시간/날짜: 12 월 1 일(토요일) 오후 5 시부터 오후 5 시 50 분 참가비:12 만돈(티켓 값) ※끝나고,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수상인형극은, 물위를 무대로 하고, 작은 인형이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인형극입니다. 스토리도 알기 쉽고, 움직임도 재밌어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면, 저희들이 스토리 설명도 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권해 주시고, 꼭 참가해주세요! 참가 희망을 하시는 분,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세요. 메일주소: ●●●@gmail.com

## Topic 5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뉴스

### PART 1 체포됐습니다

|      |                                                                        |
|------|------------------------------------------------------------------------|
|      | ①                                                                      |
| 아나운서 | 오사카부의 공원에서, 희귀한 원숭이가 잡혔습니다.                                            |
| 아이   | 음-, 저기 나무 위에 앉아 있었어, 귀여웠어.                                             |
| 주부   | 굉장히 예쁜 색이었고, 처음으로 본 것 같아 특이한 원숭이가 있구나하고 생각했는데 아, 잡혔나요?                 |
| 아나운서 | 22 일,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공원에 '금색 원숭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오사카 부경 경찰관에게 포획되었습니다. |

|          |                                                                                                                                                                                                                                                     |
|----------|-----------------------------------------------------------------------------------------------------------------------------------------------------------------------------------------------------------------------------------------------------|
| 아나운서     | 이 원숭이는 황금들창코원숭이라는 종으로, 골든몽키라고도 불립니다. 부내 동물원의 전문가의 말로는, 황금들창코원숭이는, 중국이나 티베트에 서식하는 긴꼬리원숭이의 한 종으로,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입과 사육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오사카 부경에서는 아마도 불법적인 경로로 밀수되어 애완동물로 사육되던 원숭이가 도망친 것은 아닐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
|          | ②                                                                                                                                                                                                                                                   |
| 아나운서     | 오늘 새벽, 신주쿠구의 편의점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3 시경, 도쿄도 신주쿠구 요츠야 산초메의 편의점에, 복면을 쓴 남자가 침입했습니다. 포스기에 있던 남자 점원에게 칼 같은 것을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한 후, 포스기에서 현금 약 47,000 엔을 탈취했습니다                                                                     |
| 아나운서     | 그리고 남자는 가게를 나와 도주하려던 찰나, 가게입구 옆에 장식되어 있던, 할로윈 귀신 인형을 보고 놀라 넘어지며 허리를 세게 부딪쳤습니다. 남자가 웅크리고 있는 틈에, 점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당해, 강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인 남자는 신주쿠구에 사는 무직인 48 세의 야마시타 카즈히로로, 혐의를 전면으로 인정한 뒤, '그런 곳에 귀신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          | ③                                                                                                                                                                                                                                                   |
| 아나운서     | 신슈에서 단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가노현 마츠모토시, 북 알프스의 카라사와에서는 단풍이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지금이 최고조로, 선명하게 물든 마가목의 붉은색, 사스래나무의 노란색, 눈잣나무의 녹색이 멋지게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
| 아나운서     | 북 알프스 호타카다케의 산기슭, 해발 2,300m, 가미코치에서 도보로 약 6 시간 걸리는 이 산 속에는, 많은 등산객이 방문하여, 불타오르는 것 같은 단풍을 즐기고 있습니다. 등산객 수도 지금이 최고조로, 야영지에서는 자연의 단풍과는 또 다른 형형색색의 컬러풀한 텐트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단풍은 이달 말까지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
|          | ④                                                                                                                                                                                                                                                   |
|          | 오늘,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에서 '푸른 하늘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러너들은, 오전 9 시 넘어 현청 앞에서 일제히 출발하여, 푸른 하늘 아래, 거리 42.195km 의 코스를 달려 나갔습니다. 올해 마라톤에는, 응모자가 정원의 8 배를 넘어, 추첨으로 선별된 시민 러너와 초대선수, 도합 24,000 명이 참가했습니다.                                                           |
| 러너 1(여성) | 처음 참가하는 거라 좀 떨리네요. 그래도 꼭 완주할 거예요.                                                                                                                                                                                                                   |
| 러너 2(남성) | 중국에서 왔습니다. 일본 분들과 달리는 게 기대돼요!                                                                                                                                                                                                                       |
| 러너 3(남성) | 네, 오늘은 호빵맨 옷을 입고 와버렸습니다.                                                                                                                                                                                                                            |
| 아나운서     | 그 중에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나 동물 모양의 의상을 입은 러너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33 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약 2,000 명의 외국인 러너도 참가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가 적힌 모자를 쓴 외국인 봉사자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

**PART 2 불이 났다고 해요**

|         |                                                                                              |
|---------|----------------------------------------------------------------------------------------------|
| 나카이(남성) |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
| 타카스(여성) | 안녕. 무슨 일이야? 차가 막혔어?                                                                          |
| 나카이(남성) | 그러니까요 차가 너무 막혀서.                                                                             |
| 오레나(여성) | 아, 뉴스에서 했었죠. 남쪽 다리가... 교통 통제?                                                                |
| 나카이(남성) | 통행금지?                                                                                        |
| 오레나(여성) | 맞아 통행금지 됐대. 불이 났대요.                                                                          |
| 타카스(여성) | 아, 나도 봤어.                                                                                    |
| 나카이(남성) | 그래요? 몰랐네.                                                                                    |
| 오레나(여성) | 다리 밑에 공장이 있었죠? 그 공장 불이 났거든요. 바람이 강했던 탓에 그 불이 커져 다리 쪽으로 까지 번진 것 같습니다.                         |
| 나카이(남성) | 아, 그렇습니까?                                                                                    |
| 오레나(여성) | 뉴스에 따르면 공장은 전부 불타고 부상자도 10 명 이상 나왔다고 해요. TV 에서 봤는데 다리는 시커멓게 되어 있고 소방차의... 거품? 이 짝 펼쳐져 있더라고요. |
| 타카스(여성) | 꽤 큰 화재였구나.                                                                                   |
| 나카이(남성) | 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차가 많이 막혔었군요.                                                                   |
| 오레나(여성) | 큰일이네요. 그래도 화재를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
| 타카스(여성) | 하지만 그렇게 큰 화재라면 다리가 고쳐질 때까지 잠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
| 오레나(여성) | 네. 완전히 고치는 데는 반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꽤 힘든 공사이겠네요.                                                   |
| 나카이(남성) | 정말요! 반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반 년이나 이런 상태가 지속될까요?                                                |
| 오레나(여성) | 아니요, 다리는 일단 간단하게 수리해서 차만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통행 금지는 약 3 주 정도면 해소될 것 같다고 하던데요.               |
| 나카이(남성) | 그러고도 3 주일이나 걸릴까?                                                                             |
| 오레나(여성) | 3 주 내에 통과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 타카스(여성) | 음- 가능한 한 빨리 집을 떠나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지도. 음,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까다롭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 상황을 봐 가면서 조심해서 출근해.       |
| 나카이(남성) | 큰일났네, 정말...                                                                                  |

**PART 3 시청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만...**

|         |                                                    |
|---------|----------------------------------------------------|
| 제이크(남성) | 아세요?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데 돈을 지불해야 한대요.                     |
| 어머니 1   | 어머, 정말인가요?                                         |
| 제이크(남성) | 시청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내년부터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바뀐대요.              |
| 어머니 2   | 바뀐다니요?                                             |
| 제이크(남성) | 가정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는, 정해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내놓는 방식으로 될 거래요. |
| 어머니 1   | 네?                                                 |
| 제이크(남성) | 쓰레기봉투는, 슈퍼나 가게에서 사는데,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가 봐요.          |

|         |                                                                                              |
|---------|----------------------------------------------------------------------------------------------|
|         | 그래서 그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으면,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
| 어머니 1   | 진짜요?                                                                                         |
| 제이크(남성) | 전부터 종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가 하는 재활용쓰레기는, 다른 가연성 쓰레기랑 분리해서 내놓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
| 어머니 2   | 맞아요.                                                                                         |
| 어머니 1   | 그렇죠.                                                                                         |
| 제이크(남성) | 하지만, 귀찮아서, 분리 안하고 내놓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라...그래서 더 재활용이 잘 진행되도록, 가연성 쓰레기를 버릴 때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써 있었어요. |
| 어머니 1   | 그래요?                                                                                         |
| 제이크(남성) | 또... 자세한 건, 다음에, 시청에서 공지 팜플렛이 배포된다고 해요. 뭐 귀찮지만, 분리할 수밖에 없죠.                                  |
| 어머니 2   | 그렇네요.                                                                                        |

#### PART 4 외국인 관광객 위한 어플이 화제

새로운 일본의 매력을 발신!

자주 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어플 「NippoNavigation」이 화제에!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어플 「NippoNavigation」이 화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더욱 깊게 알고, 일본 여행을 즐기는 방법을 더 넓히기 위한 목적인 이 어플은, 외국인에게 좀처럼 방문하기 어려운 알려지지 않은 곳의 정보나 저렴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쿠폰, 일본에 대한 칼럼 등을 보내고 있다.

외국인의 일본 여행이라고 하면, 유명관광지, 전통문화, 일본요리나 쇼핑 등이 기본이었다. 하지만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2 번 3 번 일본을 방문하는 단골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 일본의 여러 면을 보고싶다, 현대의 일본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요구가 최근에 눈에 띄게 되었다. 이런 외국인 관광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명관광지나 전통 문화 등의 기본정보 뿐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 「NippoNavigation」은 지금까지와 같은 일본 여행에서 만족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새로운 일본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관광정보로는 유명관광지의 정보는 물론, 그곳에 사는 사람밖에 가지 않을 것 같은 음식점이나 이벤트 등, 알려지지 않은 정보도 전송된다. 올빼미 카페나 닌자체험 등 외국인에게 인기있는 장소나 놀이기구도 소개. 쇼핑족에게는 인기 전자제품가게나 드럭스토어 등에서 싸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쿠폰도 있다. 또 일본에 관한 칼럼도 충실하다. 지금까지의 가이드북으로는 커버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일본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라는 호평과 "보통의 일본인의 생활을 보고싶다" "쿠폰 종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등의 요청도 와있다고 한다.

대응언어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또 최근 여행자가 늘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응도 결정되어, 총 5 개언어로 대응하게 된다. 현재 대응 지역은 도쿄 23 구, 교토, 오사카뿐이지만, 이후로 지역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실제로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일본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라는 호평과 "보통의 일본인의 생활을 보고싶다" "쿠폰종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등의 요청도 와있다고 한다.

대응언어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또 최근 여행자가 늘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응도 결정되어, 총 5 개언어로 대응하게 된다. 현재 대응 지역은 도쿄 23 구, 교토, 오사카뿐이지만, 이후로 지역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 PART 5 뉴스를 공유

새로운 어플을 찾았습니다. 일본 여행이 더욱 즐거워지는 어플이래요! 일본에 갔던 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일본에 갈 때, 가부키라든지 스시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평소에 가는 듯한 선술집같은 곳에 가보고싶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 어플은 그런 알려지지 않은 장소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일본에 가본 적이 있지만, 한번 더 일본을 여행할 찬스가 있다면 이 어플을 사용해서, 조금 다른 일본 여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 Topic 6 이걸 갖고 싶어!

### PART 1 이게 없으면 곤란해

|          |                                                                                                                                 |
|----------|---------------------------------------------------------------------------------------------------------------------------------|
| 요코(여성)   | 와-, 그거, 사과를 그런 식으로 자르는구나. 흥미롭네.                                                                                                 |
| 모니카(여성)  | 아, 이거? 사과 커터기야. 좋아 보이지?                                                                                                         |
| 듣는사람(여성) | 일본에는 없나요??                                                                                                                      |
| 요코(여성)   | 나는, 처음 봤는데.                                                                                                                     |
|          | ①                                                                                                                               |
| 모니카(여성)  | 이거, 일본에서는 별로 안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 유학 갔을 때, 사과가 먹고 싶어져서 이 커터기를 열심히 찾았었는데 어디에서도 안 팔더라고요. 주변의 일본인에게 설명하면, "사과 같은 건 식칼을 쓰면 되잖아"라고 하고. |
| 토모코(여성)  |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
| 모니카(여성)  | 그래도, 이걸 쓰면 간단하고, 손도 더러워지지 않고, 안전하니까, 아이들도 쓸 수 있잖아요? 전, 요령이 좀 없고, 칼도 잘 못 써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
| 요코(여성)   | 그렇구나.                                                                                                                           |
| 모니카(여성)  | 그래서, 그 때는 결국엔 일본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엄마가 우리나라에서 보내주셨어요.                                                                               |
| 듣는사람(여성) | 네? 일부러요?                                                                                                                        |
| 모니카(여성)  | 네. 옛날엔 이런 도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네요.                                                                                           |
| 요코(여성)   | 아무래도 그렇지.                                                                                                                       |
| 모니카(여성)  | 지금은, 일본에서도 100 엔샵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대요.                                                                                               |
| 마나미(여성)  | 그렇구나. 근데, 쓰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
|          | ②                                                                                                                               |
| 요코(여성)   | 근데 반대로, 일본에는 있지만 이 나라에는 없는 것도 꽤 있지.                                                                                             |
| 듣는사람(여성) |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
| 요코(여성)   | 예를 들면, 요전에 일본에 돌아갔을 때 이거 사 왔어.                                                                                                  |

|          |                                                                                                                                       |
|----------|---------------------------------------------------------------------------------------------------------------------------------------|
| 듣는사람(여성) | 어, 뭔가요? 그건.                                                                                                                           |
| 요코(여성)   | 이건 말이야, 정전기방지 키홀더야.                                                                                                                   |
| 마나미(여성)  | 아-, 알아요.                                                                                                                              |
| 듣는사람(여성) | 네? 무슨 키홀더라고요?                                                                                                                         |
| 요코(여성)   | 정전기방지, 음...겨울에 건조하고 추운 날에, 차나 집 문을 만졌을 때, '찌릿!' 해서 아프잖아? 그걸 방지하는 거야.                                                                  |
| 듣는사람(여성) | 어, 어떻게요?                                                                                                                              |
| 요코(여성)   | 이 앞부분을 문손잡이에 대면, 이쪽의 라이트가 정전기로 반짝 빛나, 그걸로 정전기가 없어진 거니까, 문을 만져도 '찌릿!' 하는 일은 없게 되는 거야.                                                  |
| 듣는사람(여성) | 오-.                                                                                                                                   |
| 모니카(여성)  | 흠-.                                                                                                                                   |
| 요코(여성)   | 여기 겨울은 일본보다 건조하니까, 문을 만질 때마다 '찌릿!' 해서 싫었어.                                                                                            |
| 마나미(여성)  | 이해해.                                                                                                                                  |
| 요코(여성)   | 하지만, 이걸 쓰면 그런 게 없어져서 되게 편해진 느낌이.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안 파는 거 같더라.                                                                        |
|          | ③                                                                                                                                     |
| 마나미(여성)  | 확실히, "이게 없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본 물건이 있긴 하죠. 저는 약이나 샴푸, 핸드크림은 익숙한 게 좋아서 일본에서 사서 갖고 와요.                                                |
| 듣는사람(여성) | 와- 번거롭지 않아요?                                                                                                                          |
| 토모코(여성)  | 특히 약 같은 건 나도 사오거든.                                                                                                                    |
| 마나미(여성)  | 맞아요. 저도 감기약은 갈근탕이 아니면 안 돼요.                                                                                                           |
| 듣는사람(여성) | 영, 갈근탕? 왜요                                                                                                                            |
| 마나미(여성)  | 어...한방약이라, 몸에 부담도 없고, 부작용도 적어요. 특히 감기 초기에 효과가 좋아요.                                                                                    |
| 듣는사람(여성) | 감기 초기라면?                                                                                                                              |
| 마나미(여성)  | 음-, 몸이 좀 나른하고, 머리도 아프고, 감기인가 싶을 때 갈근탕을 마시면 내일까진 무조건 낫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 요코(여성)   | 그거, 그냥 기분 탓 아냐?                                                                                                                       |
| 마나미(여성)  |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해외에 사는 일본인 중에 갈근탕을 일부러 일본에서 사서 갖고 온 사람이 실은 꽤 많다 더라고요.                                                                    |
| 듣는사람(여성) | 아, 그렇군요.                                                                                                                              |
|          | ④                                                                                                                                     |
| 토모코(여성)  | 난 역시 사이즈 문제가 커. 예를 들면 신발. 여기는 내 사이즈의 신발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 발 사이즈는 22.5cm 인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사이즈의 사람이 거의 없나 봐, "어린이용 신발을 찾아 주세요"란 소리를 항상 들어서.... |
| 듣는사람(여성) | 헐~.                                                                                                                                   |
| 마나미(여성)  | 저도, 그런 적 있어요.                                                                                                                         |
| 토모코(여성)  | 어린이용 같은 걸 이제 와서 신을 수 없잖아. 그리고, 찢술.                                                                                                    |
| 요코(여성)   | 아~ 알지.                                                                                                                                |
| 마나미(여성)  | 너무 크죠.                                                                                                                                |
| 토모코(여성)  | 맞아, 여기 찢술은 헤드 부분이 거대하잖아. 헤드부분이 컴팩트하고 작은 편이                                                                                            |



|          |                                                   |
|----------|---------------------------------------------------|
|          | 분명히 닦기 쉬울 텐데....                                  |
| 모니카(여성)  | 어, 그런가.                                           |
| 토모코(여성)  | 응, 그래서 일본에서 사가지고 오거나, 친구에게 보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
| 듣는사람(여성) | 그렇군요.                                             |
| 토모코(여성)  | 나도 가끔 일본에 돌아가면, 우선 칫솔을 사고 그리고 신발을 사고,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 |

## PART 2 나, 타코야끼 진짜 좋아해

|         |                                                                                        |
|---------|----------------------------------------------------------------------------------------|
| 아키(여성)  | ...그럼 다음 달 잘 부탁해.                                                                      |
| 파멜라(여성) | 응, 기대하고 있을게.                                                                           |
| 아키(여성)  | 아 참! 혹시 일본에서 사가는 게 좋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사가지고 갈게.                                           |
| 파멜라(여성) | 음, 괜찮아. 걱정하지 마.                                                                        |
| 아키(여성)  | 아니, 왜냐면 1 주일이나 묵게 되는데, 그 정도는 해.                                                        |
| 파멜라(여성) | 그래, 그러면... 나 지금 너무 갖고 싶은 거 있는데... 부탁할까?                                                |
| 아키(여성)  | 뭐야? 말해봐, 말해봐                                                                           |
| 파멜라(여성) | 저기 말이야 타코야끼 기계 사다 줄래?                                                                  |
| 아키(여성)  | 뭐? 타코야끼 기계? 그런 거 갖고 싶어?                                                                |
| 파멜라(여성) | 응, 나 타코야끼 엄청 좋아해. 여기는 문어도 있고 소스나 가다랑어포는 일본계 슈퍼에서 살 수 있고. 하지만 타코야끼 기계는 역시 여기서는 팔지 않으니까. |
| 아키(여성)  | 아, 그렇구나.                                                                               |
| 파멜라(여성) | 그리고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봤는데, 타코야끼뿐만 아니라, 아히조나 도넛 같은 것도 여러가지 만들 수 있는 것 같던데.                      |
| 아키(여성)  | 흠~ 알았어. 근데 타코야끼 기계라고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아?                                               |
| 파멜라(여성) | 응, 한 번에 20 개 정도 굽는 거로... 그리고 가스랑 전기 있는데 전기식 거로 부탁해                                     |
| 아키(여성)  | 전기식이네. 하지만, 일본 것이,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어?                                                      |
| 파멜라(여성) | 응 전압은... 우리 집 변압기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저어, 만약 팔고 있다면 말인데, '문어 픽'이라는 것도 같이 사다 줄 수 있어?         |
| 아키(여성)  | 문어 픽? 뭐야? 그거.                                                                          |
| 파멜라(여성) | 그러니까 타코야끼를 만들 때 쓰는 꼬치로 대나무 꼬치를 대신할 수 있는 거야. 부드러운 재료로 되어 있어서 철판을 안 상하게 한대.              |
| 아키(여성)  | 흠, 그럼 찾아 볼게. 근데 타코야끼 기계는 엄청 무겁거나 크거나 그런 건 아니지?                                         |
| 파멜라(여성) | 아마 1kg 정도 될 거야. 크기는... 모르겠다. 너무 크면 미안.                                                 |
| 아키(여성)  | 네네.                                                                                    |

## PART 3 드물어서 사람들이 좋아할거 같아요.

|         |                               |
|---------|-------------------------------|
| 이케즈(남성) | 이집트 선물을 사서 돌아가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
|---------|-------------------------------|

|         |                                                                                                 |
|---------|-------------------------------------------------------------------------------------------------|
| 사이드(남성) | 음. 선물이요...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네요."파피루스 책갈피"같은 건 어떨까요?                                                 |
| 이케즈(남성) | 책갈피요?                                                                                           |
| 사이드(남성) |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림이라든지, 히에로글리프,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뭐였죠... 상형문자? 가 그려져 있는, 싸고 부피도 크지 않아서 누구에게나 줘도 좋아요.      |
| 이케즈(남성) | 그거 좋을 것 같네요.                                                                                    |
| 사이드(남성) | 그 밖에는 이집트 다운 거라고 하면, 그렇네요. "향수병"도 인기가 있어요.                                                      |
| 이케즈(남성) | 향수병이요?                                                                                          |
| 사이드(남성) | 유리 색이 예쁘고, 아라비안나이트 분위기의 디자인이어서 일본 분들은 작은 장식품으로 사가는 것 같아요.                                       |
| 이케즈(남성) | 그런가요?                                                                                           |
| 사이드(남성) | 그리고 실용적인 게 좋으시면, 개인적으로는, 이집트 면 타올을 추천해요. 물을 잘 흡수하고 음... 부드럽고 한번 사용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
| 이케즈(남성) | 오 그런가요?                                                                                         |
| 사이드(남성) | 먹을거리도 여러가지 있는데, 데츠, 음. 대추야자 열매가 들어간 초콜렛은 어떨까요? 드물어서 사람들이 좋아할 거 같아요. 회사 선물로 많이 사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
| 이케즈(남성) | 그래요?                                                                                            |
| 사이드(남성) | 선물은, 시장에 가면 여러가지가 있어서, 괜찮으시면 안내할게요.                                                             |
| 이케즈(남성) | 그럼, 부탁드립니다.                                                                                     |

#### PART 4 리뷰평이 좋았기 때문에..

|                                                                                                                                                                                                                                                   |
|---------------------------------------------------------------------------------------------------------------------------------------------------------------------------------------------------------------------------------------------------|
| 전기 타코야끼 기계 24 개구멍 탈 부착 가능한 플레이트식 1200 와트의 고성능! ((일본제))                                                                                                                                                                                            |
| 상품설명                                                                                                                                                                                                                                              |
| 가격 5,400 엔(세금포함, 배송비 포함)                                                                                                                                                                                                                          |
| 본체사이즈: 폭 36X 안쪽길이 24X 높이 7.5 츠, 무게:1.55kg, 코드길이:1.2m                                                                                                                                                                                              |
| ●1200W의 고성능! 고온에서 맛있는 타코야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 ●달라붙기 힘든 불소수지가공판                                                                                                                                                                                                                                  |
| ●편리한 온도조절기능포함! 처음이어도 간단해요.                                                                                                                                                                                                                        |
| ●플레이트는 탈부착식으로 그대로 세척 가능                                                                                                                                                                                                                           |
| ●선물로도! 선물포장 대응 상품입니다.                                                                                                                                                                                                                             |
| 이 상품을 구입했던 분의 리뷰 총합평가 4.35                                                                                                                                                                                                                        |
| ★★★★☆ 같은 바삭 속은 촉촉한 타코야끼!                                                                                                                                                                                                                          |
| 처음 타코야끼를 만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같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맛있는 타고야끼를 만들 수 있었어요! 게다가 고온에서 바로 구울 수 있어서, 타코야끼 파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반죽이 플레이트에도 달라붙지도 않고, 뒷정리가 편한 것도 ◎(높은 점수). 결점은 고온인 만큼, 소비전력이 큰 것. 저희 집에서는 전기차단기가 떨어져버렸어요. 타코야끼를 굽고 있는 동안에, 다른 전기제품을 못쓴다는 것... 그거 이외에는 대만족입니다! |
| ★★☆☆☆ 실망...                                                                                                                                                                                                                                       |
| 리뷰평이 좋아서 기대했었는데, 플레이트를 뗄 수 있는 건 좋은데, 덜컹거림이 심해요. 조리                                                                                                                                                                                                |

중에 플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화상입을 뺐었어요. 위험해서 아이들에게는 못 굽게 합니다. 게다가 굽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온도가 높은 곳은 너무 익고, 온도가 낮은 곳은 덜 구워지거나 합니다. 역시 전기보다는 가스가 더 좋은 걸까요? 전체적으로 절대 5000 엔씩이나 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선물로도 좋습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줄 선물로 구입했습니다. 포장도 해준다고 해서 부탁드렸는데, 매우 예쁘게 포장해 주셔서 감격했어요! 친구도 매우 기뻐해줘서 좋았어요. 게다가 가격도 적당. 상품배달도 빨랐어요. 별 5개여도 괜찮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1로.

★★★★★ 관서사람인 장모님도 납득

더 저렴한 거랑 고민했었는데, 이 쪽으로 해서 다행이에요. 관서사람인 장모님도 납득할 만한 맛있는 타코야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구울 때는 "강" 먹고 있을 때는 "보온"으로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플레이트를 떼서 씻을 수 있는 것도 good! 단지 전원코드가 좀 짧을지도. 테이블에서 구울 때는 연장 코드가 필요합니다. 나일론 제질의 타코야끼 꼬챙이도 함께 구입. 플레이트가 흠나지 않아, 추천입니다.

## PART5 반품 희망합니다.

상품 반품에 대해서

●● 샵 담당자분께 9 월 24 일에, 이쪽의 사이트에서 "일본식의 기본"이라는 DVD (주문번호:972516)을 주문한 ~라고 합니다.

어제, 주문한 DVD 가 도착했습니다. 사이트 설명에서는 중고이지만 새것과 다름없다고 했었는데, 도착한 DVD 에는 흠이 많고, 재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품 희망합니다. 절차 방법을 알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 Topic 7 마음에 드는 영화

### PART 1 심금을 울려요

|          |                                                                                                                   |
|----------|-------------------------------------------------------------------------------------------------------------------|
| 듣는사람(남성) | 다음 주부터 일본 영화제네요. 볼 게 많아서 고민되는데, 어떤 영화를 추천하시나요?                                                                    |
|          | ①                                                                                                                 |
| 야마모토(여성) | 글쎄요. 이번 라인업이라면, 역시 구로사와 영화는 뺄 수가 없군요. '스가타 산시로'와 '란'도 좋은 작품입니다만, 제가 하나를 고른다면, 역시 '살다'를 고를 것 같군요.                  |
| 듣는사람(남성) | 음, 어떤 영화인가요?                                                                                                      |
| 야마모토(여성) | 이 영화는 굉장히 수수해요.                                                                                                   |
| 듣는사람(남성) | 수수하다고요?                                                                                                           |
| 야마모토(여성) | 구로사와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칼싸움이나 격투기 같은 액션도 없고, 스토리의 고조감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서서히 마음에 와 닿아요.                                |
| 듣는사람(남성) | 그렇다는 건....                                                                                                        |
| 야마모토(여성) | 주인공은, 지극히 평범한 관공서에서 일하는 남성인데, 어느 날, 자신이 암에 걸려 앞으로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남은 인생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 형태로 남기고 싶다고 생각해요.... |

|          |                                                                                                                   |
|----------|-------------------------------------------------------------------------------------------------------------------|
| 듣는사람(남성) | 오-                                                                                                                |
| 야마모토(여성) | 그걸 연기하는 시무라 타카시의 연기가, 또 일품이지요. 유명한 그네에서의 장면은, 마음이 정말 짱합니다.                                                        |
| 듣는사람(남성) | 그렇군요.                                                                                                             |
| 야마모토(여성) | 오래 된 작품이지만,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
| 듣는사람(남성) | 와-, 한 번 보고 싶네요.                                                                                                   |
|          | ②                                                                                                                 |
| 마루야마(남성) | 아-, '살다', 좋지요. 하지만 이 중에서라면, 좀 새로운 영화에도 좋은 작품이 있죠.                                                                 |
| 듣는사람(남성) | 어떤 건가요?                                                                                                           |
| 마루야마(남성) | 예를 들면, 이 '홀라 걸스'라든가.                                                                                              |
| 듣는사람(남성) | 오-                                                                                                                |
| 마에다(여성)  | 아-, 그거 말이지.                                                                                                       |
| 마루야마(남성) | 이 영화는, '으랏차차 스모부'나 '워터 보이즈'와 비슷한 노선의 영화인데요, 조금 스포근이 들어 있어서...                                                     |
| 듣는사람(남성) | 스포츠?                                                                                                              |
| 마루야마(남성) | 네, 스포츠 근성물이라, 상쾌한 감동이 있지요.                                                                                        |
| 듣는사람(남성) | 상쾌한 감동이란 건...                                                                                                     |
| 마루야마(남성) | 음-, 처음엔 완전 무능하게 나오지만, 노력해서 마지막에는 성공하는 패턴.                                                                         |
| 듣는사람(남성) | 아~.                                                                                                               |
| 마루야마(남성) | 분명 그런 패턴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도, 보고 있으면 조마조마하고, 게다가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엔 역시 감동하게 되죠.                                             |
| 듣는사람(남성) | 오~.                                                                                                               |
| 마루야마(남성) | 이 '홀라 걸스'는 지방의 온천시설에서 홀라 댄서를 육성하는 스토리인데요....                                                                      |
| 듣는사람(남성) | 네? 일본에서 홀라 댄스요?                                                                                                   |
| 마루야마(남성) | 네-. 실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 심오한 걸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상쾌하니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어요.                                        |
| 듣는사람(남성) | 이것도 좋을 거 같네요                                                                                                      |
|          | ③                                                                                                                 |
| 마에다(여성)  | 제가 추천하는 건,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짱구는 못말려'입니다.                                                                           |
| 듣는사람(남성) | '짱구'요?                                                                                                            |
| 마에다(여성)  | '짱구는 못말려'는 어린이용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
| 듣는사람(남성) | 그렇지 않은가요?                                                                                                         |
| 마에다(여성)  | 영화판은 전혀 달라요.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국대전투 (원제: 嵐をよぶアッパレ! 戦国大合戦)'는, '짱구는 못말려' 시리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이자, 으뜸이라고 해요. |
| 듣는사람(남성) | 와-, 그렇군요. 이게....                                                                                                  |
| 마에다(여성)  | 완성도가 높고, 어른이 봐도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
| 듣는사람(남성) | 흠-, 그 가치라는 건...                                                                                                   |
| 마에다(여성)  | 이건, 짱구네 가족 전체가 전국시대로 타임슬립하는 이야기인데요, 짱구의 이야기에, 전국시대의 사무라이와 공주의 드라마가 얹혀 있어 스토리가                                     |

|          |                                                                                                             |
|----------|-------------------------------------------------------------------------------------------------------------|
|          | 심오하고, 아무튼 눈물이 나요.                                                                                           |
| 듣는사람(남성) | 그런가요?                                                                                                       |
| 마에다(여성)  | 게다가, 연출도 공들였고요. 실은, 전에 아이를 위해 DVD 를 빌려서 같이 봤는데요, 마지막에는 부모인 제가 펄펄 울어버려서....                                  |
| 듣는사람(남성) | 아-, 그렇게나 감동하나요.                                                                                             |
| 마에다(여성)  | 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고, 꼭 보세요                                                                                  |
|          | ④                                                                                                           |
| 미야자키(남성) | 애니메이션도 좋지만, 이 중에서는 역시 '고질라'네요.                                                                              |
| 마에다(여성)  | 네, 고질라요? 그건, 괴수 이야기죠?                                                                                       |
| 미야자키(남성) | 네. 사실 고질라는 시리즈로 돼있고, 여러가지 작품이 있는데, 이 1954 년도의 첫 번째 작품은 다른 것과는 레벨이 전혀 달라요.                                   |
| 듣는사람(남성) | 레벨이 다르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
| 미야자키(남성) | 음-, 단순한 오락성 작품이라고 보다는 메시지성이 강해서, 예를 들면, 전쟁이나 핵실험에 대한 경고 같은 것이 전해져 와요.                                       |
| 듣는사람(남성) | 흐음.                                                                                                         |
| 미야자키(남성) | 영상도 굉장해서 CG 같은 건 전혀 없던 시대에 특수촬영만으로 만들어졌는데, CG 보다 외려 박력이 있을 정도예요.                                            |
| 듣는사람(남성) | 그런가요.                                                                                                       |
| 미야자키(남성) | 그리고, 처음 20 분 동안은 전혀 고질라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공포감을 고조시켜주고, 마침내 고질라가 나타날 때의 연출엔, 심장이 맞는 줄 알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꼭 보세요. |
| 듣는사람(남성) | 오-                                                                                                          |

## PART 2 개성적인 연기가 좋았지

|         |                                                                                                                                             |
|---------|---------------------------------------------------------------------------------------------------------------------------------------------|
| 통강(남성)  | 꽤 괜찮았어, 갈매기 식당.                                                                                                                             |
| 아즈사(여성) | 그래? 어떤 점이?                                                                                                                                  |
| 통강(남성)  | 어쩐지 전체 분위기가 좋더라. 게다가, 배우의 개성적인 연기가 좋았지. 특히, 모타이... 마사코였나? 존재감이 있었지                                                                          |
| 아즈사(여성) | 응, 연기는 좋았지만... 근데 나로서는 좀 지루했다고 보다 스토리가 거의 없었다는 느낌 아니야? 흥도 돌올 데도 없었고.                                                                        |
| 통강(남성)  | 글쎄... 근데 그게 좋지 않을까? 웬지 모르게 행복한 기분이 들었고.그리고 핀란드 풍경도 좋더라. 마치 그림 보는 거 같아서.                                                                     |
| 아즈사(여성) | 영상은요. 근데 이야기에 클라이맥스도 없고 생각하게끔 깊은 주제도 없잖아요? 식당의 일상을 그냥 쫓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부족했네.                                                                    |
| 통강(남성)  | 그래? 근데 그게 아마 일부러 불타오르는 에피소드를 안 넣었을 거야. 울거나, 조마조마하거나, 두근거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교류는 잘 그려져 있고...포근한 기분이 들 수 있으니까 보고 되게 편안한 것 같아. |
| 아즈사(여성) |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 실은 나, 「해외에서 열심히 하는 일본인의 파란만장한 인생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상상했는데, 꽤 예상과 달랐어.                                                                |

|         |                                                              |
|---------|--------------------------------------------------------------|
| 통강(남성)  | 흠, 그렇구나.                                                     |
| 아즈사(여성) | 아, 재밌는 장면은 여러가지가 있었지? 사치에와 미도리가 처음 만나는 곳이라던가.                |
| 통강(남성)  | 아, 둘이 서점에서 애니메이션 노래 부르는 장면이지? 그거 웃겼네.                        |
| 아즈사(여성) | 응. 그리고 끝났을 때 '뭐, 이게 끝이야?' 하지 않았어?                            |
| 통강(남성)  | 아, 그건 생각했어. 그렇지만 그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영화의 세계에 빠져 있었나라고 생각 했어. |
| 아즈사(여성) | 그런가.                                                         |
| 통강(남성)  | 한 번 더, 라기보다 몇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생각되는 영화인 것 같아.                     |

### PART 3 불후의 명작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         |                                                                                             |
|---------|---------------------------------------------------------------------------------------------|
| 아오키(여성) | 레인 씨 요즘 뭔가 영화 봤어?                                                                           |
| 레인(여성)  | 주말에 집에서 "로마의 휴일"을 봤어요. 그건 몇 번을 봐도 좋은 영화예요.                                                  |
| 아오키(여성) | 아, 나도 좋아해. 좋지.                                                                              |
| 레인(여성)  | 뭐니 뭐니 해도 오드리 헵번이 예뻐. 그리고 공주 때는 기품이 있고, 일반 여자일 때는 매우 매력적이고                                   |
| 아오키(여성) | 그렇지                                                                                         |
| 레인(여성)  | 신문기자인 그레고리펙도 좋아요. 스토리도 동화 같긴 하지만, 드라마틱하고.                                                   |
| 아오키(여성) | 응.                                                                                          |
| 레인(여성)  | 로마의 하루뿐인 휴일 중 두사람의 만남과 모험, 사랑과 이별이 전부 들어가 있어서, 보고 있으면 두근두근해요.                               |
| 아오키(여성) | 그렇지.                                                                                        |
| 레인(여성)  | 게다가 영화 속의 로마의 거리를 보는 것도 즐겁구요. 오래된 유적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마치 함께 로마를 걷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
| 아오키(여성) | 아아. 맞아. 좋아하는 장면이라든지 있어?                                                                     |
| 레인(여성)  | 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역시 둘의 이별 장면이네요.                                                            |
| 아오키(여성) | 응.                                                                                          |
| 레인(여성)  |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는 둘. 미소를 지으면서 공주의 눈에 눈물. 둘의 감정이 전해와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 걸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거겠죠. |
| 아오키(여성) | 나도 한번 더 봐볼까..                                                                               |

### PART 4 기대했던 대로 좋은영화였어요!

|                                                                                                                                                                                                                                                                        |
|------------------------------------------------------------------------------------------------------------------------------------------------------------------------------------------------------------------------------------------------------------------------|
| <p><b>홀라걸</b></p> <p>영화 줄거리/해설 1965년, 석탄에서 석유로 변화하는 시대에 후쿠시마 현의 작은 탄광촌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계획된 "조반 하와이안 센터". 그 중심이 되는 홀라댄스쇼를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린, 실화를 기반으로 한 감동드라마. 주연 마츠유키 야스코를 시작으로 홀라걸스를 연기하는 아오이유우 등의 훌륭한 연기가 빛난다. 출연자가 춤추는 홀라댄스도 ... 계속 읽기</p> <p>너나없이 감동! 의 이야기입니다.</p> |
|------------------------------------------------------------------------------------------------------------------------------------------------------------------------------------------------------------------------------------------------------------------------|

기대했던 대로, 좋은 영화였어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 시골 소녀들이 각각의 처지를 떠안아가며 필사적으로 열심히, 프로댄서로 성장한다는 자주 있는 패턴의 이야기입니다만, 좋은 장면도 많이 있고, 어쨌든 자꾸 눈물이 나오. 개인적으로 도쿄로 돌아가려고 하는 선생님을 붙잡으려고 홀라걸들이 눈물을 흘리며 홀라댄스로 감정을 전하는 장면에서 평평 울었어요. 캐스팅도 좋았어요. 아오이유우는 웃는 얼굴이 멋지고 순수하고 열심히 하려는 역이 딱! 마지막 장면의 댄스도 멋졌습니다. 홀라댄스의 선생님역의 마츠유키 야스코의 연기도 평대로 훌륭했습니다. 그 이외에 조연도 좋은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오이유우가 연기한 키미코 이외의 홀라걸에게도 좀 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흔한 스토리아닌가..?

조금 만족할 수 없는 영화였습니다. 댄스라는 건 해본 적도 없는 평범한 소녀가 열심히 연습해서, 마지막에는 성공을 거두다. 그리고 선생이나 동료와의 유대도 깊어진다. 처음에는 반대했었던 부모도 아이들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게 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점은 확실히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봤는데... 라는 이야기 라는 느낌이... 게다가 홀라댄스의 연습 모습이 별로 주의 깊게 그려져 있지가 않아서 갑자기 실력향상이 된 느낌. "고생해서 연습했어"라는 것이 별로 전해져 오지 않고, 마지막 홀라댄스의 장면도 조금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화만이 가능한 설득력

홀라댄스 따위 남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시대에, 홀라댄스에 모든 걸 건 탄광촌 소녀들. 탄광의 폐광전에 이미 석탄의 시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탄광을 지켜려는 하와이안 센터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립은 어떤 시대에도 있는 것들이다. 처음은 하와이안 센터의 건설에 반대했었던 탄광의 사람들도, 홀라걸들의 웃는 얼굴이나 노력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소녀들을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한다. 그 모습에서는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가 느껴진다. 그것을 더욱 강하게 인상을 남기는 것이 홀라걸들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키미코의 어머니가 "괴로워도 혀를 깨물면서 일하는 것이 일이다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하와이안 센터에게 협력하기 시작하는 장면이겠지. 이장면도 실화이기 때문에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도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개척되어 왔다는 걸 다시한번 생각하게 됐다.

## Topic 8 우리 마을의 교통기관

### PART 1 또 전철이 지연되네

|          |                                              |
|----------|----------------------------------------------|
| 듣는사람(남성) | 아- 또 전철이 늦어지고 있어. 20 분 늦는데.                  |
| 신지(남성)   | 또 그러냐.                                       |
| 코우타(남성)  | 참으로 곤란한 일이네.                                 |
|          | ①                                            |
| 나오코(여성)  | 진짜 이 나라 전철은 신뢰가 안 가. 시간대로 운행하는 걸 보는 게 더 드물어. |
| 살리나(여성)  | 맞아.                                          |
| 듣는사람(남성) | 아~.                                          |
| 나오코(여성)  |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행선지가 바뀌기도 하잖아.  |
| 신지(남성)   | 아-, 그렇지.                                     |

|          |                                                                                                                                                         |
|----------|---------------------------------------------------------------------------------------------------------------------------------------------------------|
| 나오코(여성)  | 요전만 해도 중간 역에서 갑자기 '이 열차는, 이 역이 종착역이 되었습니다. 승객분들은 모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내리라는 거지. 추운 플랫폼에서 다음 열차를 30 분 이상 기다리게 해서 '제발 그러지 말아 주세요'란 느낌이었어.                  |
| 살리나(여성)  | 그거 참 안 됐다.                                                                                                                                              |
| 나오코(여성)  | 게다가, 여긴 파업도 많잖아! 요전에도, 하루 종일 전철을 운행하지 않아서 그날 예정이 전부 수포로 돌아갔지.                                                                                           |
| 듣는사람(남성) | 헐, 일본에서는 파업이 없어?                                                                                                                                        |
| 나오코(여성)  | 거의 없지. 여긴, '요전에도 파업한지 얼마 안 됐잖아'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항상 하고 있고.                                                                                                  |
| 코우타(남성)  | 맞아 맞아                                                                                                                                                   |
|          | ②                                                                                                                                                       |
| 살리나(여성)  | 응, 확실히, 일본과는 완전 다르지. 아마, 교통기관은 시간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감각 자체가, 여기는 좀 없는 거 같아.                                                                                     |
| 나오코(여성)  | 그래?                                                                                                                                                     |
| 듣는사람(남성) | 그렇지도 모르겠다.                                                                                                                                              |
| 살리나(여성)  | 내가 일본에 가면, 반대로 놀라는 걸.                                                                                                                                   |
| 나오코(여성)  | 어, 뭐에?                                                                                                                                                  |
| 살리나(여성)  | 그도 그럴 게 일본이라면 겨우 3 분밖에 안 늦었는데, 안내방송으로 '전철이 늦어져,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계속 사과하잖아. 참 대단해.                                                                           |
| 듣는사람(남성) | 진짜?                                                                                                                                                     |
| 나오코(여성)  | 아-, 그럴 수도.                                                                                                                                              |
| 살리나(여성)  |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도 마침 태풍이 왔었는데, 다음 날 전철을 탔더니 안내방송으로 '어제는 태풍으로 인해 전철 시간이 변동되어, 정말 죄송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있는 거야. 태풍이잖아. 이쯤 되면, 그건 그거 대로 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들어?             |
| 나오코(여성)  | 그렇게 들으니, 그런 것도 같고...                                                                                                                                    |
|          | ③                                                                                                                                                       |
| 신지(남성)   | 맞아, 그에 비하면, 여긴 교통기관도 손님도, 둘 다 굉장히 느긋하지. 5 분이나 10 분 늦어도, 별로 신경도 안 쓴달까. 확실히, 늦는 게 나쁜 일이라고는 딱히 생각하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어.                                          |
| 살리나(여성)  | 그렇지.                                                                                                                                                    |
| 듣는사람(남성) | 아-, 알겠어.                                                                                                                                                |
| 신지(남성)   | 요전에,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도중의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려서 사라져버린 거야. 그리고 10 분 정도였나, 돌아오질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고 있었더니 샌드위치를 사 들고 온 거야. 아마 그 주변 가게에서 점심을 사온 거겠지만 정말 깜짝 놀랐었지. |
| 코우타(남성)  | 굉장한데.                                                                                                                                                   |
| 듣는사람(남성) | 아, 일본에선 그런 일이 없구나.                                                                                                                                      |
| 신지(남성)   | 근무 중에는 안 하겠지. 근데, 그 때 옆 사람에게 '민겨요?' 라고 말했더니, '배고픈 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더라. 참 뭐라고 할지....                                                              |



|          |                                                                                                                  |
|----------|------------------------------------------------------------------------------------------------------------------|
|          | ④                                                                                                                |
| 코우타(남성)  | 느긋하지. 근데, 반대로 여기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 일본에 돌아갔을 때 전철을 타면, 특히, 사람들이 붐빌 때는 역무원도 손님도 여유가 없어서, 예민해서. 웬지 지친단 말이야.         |
| 나오코(여성)  | 뭐 그렇지.                                                                                                           |
| 듣는사람(남성) | 그래?                                                                                                              |
| 코우타(남성)  | 예를 들면, 일본이라면 전철에 유모차를 실으면 가끔 차가운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                                                                 |
| 나오코(여성)  | 아-.                                                                                                              |
| 듣는사람(남성) | 헐, 유모차는 안 돼?                                                                                                     |
| 코우타(남성)  | 안 되는 건 아닌데, 싫어하는 사람은 있는 거지. 그리고, 붐빌 때는 위험하고.                                                                     |
| 코우타(남성)  | 그래도, 그런 게 여기서는 없잖아. 유모차는 물론이고, 자전거도 그대로 전철에 실어도 괜찮으니까.                                                           |
| 나오코(여성)  | 그렇지.                                                                                                             |
| 듣는사람(남성) | 헐-, 일본은 실을 수 없구나.                                                                                                |
| 코우타(남성)  | 접어서 자루에 담지 않으면 말이지                                                                                               |
| 코우타(남성)  | 그리고, 여기라면 가령 전철을 놓칠 거 같을 때, 플랫폼에서 '기다려~'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손을 흔들면 대체로 기다려 주잖아? 이거 요전에 일본에서 했더니, 조금도 기다려 주지 않아서 진짜 슬프더라. |
| 듣는사람(남성) | 아- 또 전철이 늦어지고 있어. 20 분 늦는데.                                                                                      |
| 신지(남성)   | 또 그러냐.                                                                                                           |
| 코우타(남성)  | 참으로 곤란한 일이네.                                                                                                     |

## PART 2 오늘은 운행을 안 하네요

|            |                                                                                                   |
|------------|---------------------------------------------------------------------------------------------------|
| 에린(여성)(여성) | 저, 무슨 일이라도 도와드릴까요?                                                                                |
| 하세가와 · 부인  | 어... 아, 일본어를 하실 줄 아십니까?                                                                           |
| 에린(여성)     | 네, 그렇게 잘하지는 못 하지만요. 무슨 일이세요?                                                                      |
| 하세가와 · 남편  | 아니, 실은 다음의 그린파크라는 역에서 갈아탈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모두 여기에서 전철에서 내려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 에린(여성)     | 아, 차내 방송으로 말했습니다만, 이 열차는 여기 빅토리아에서 끝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린 파크까지 간다면 다음에 오는 기차를 타면 되는 것입니다. 좀 기다릴지도 모르는데요. |
| 하세가와 · 남편  | 이상하네요. 탈 때 제대로 행선지를 확인하고 탄 것 같은데요.                                                                |
| 에린(여성)     | 아, 런던 지하철은 이렇게 갑자기 행선지가 바뀌거나 중간 역에서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일본 전철만큼 정확하지 않아요.                            |
| 하세가와 · 부인  |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
| 에린(여성)     | 물론 불편하지만, 다들 벌써 포기했네요. 전차란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
| 하세가와 · 남편  | 그래서 우리는 여기 러셀 스퀘어라는 역까지 가고 싶은데, 그린 파크까지 가서 거기서 이 검색 노선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죠?                              |

|           |                                                                                                              |
|-----------|--------------------------------------------------------------------------------------------------------------|
| 에린(여성)    | 아, 이번 주말은 피카딜리선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알아보겠어요...(포즈) 아... 역시 오늘은 운휴네요. 러셀스퀘어 어느 쪽으로 가실 건가요? |
| 하세가와 · 남편 | 글쎄요, 이 호텔 말인데요...                                                                                            |
| 에린(여성)    | 글쎄요, 그 근처라면 이대로 빅토리아 선으로 옥스퍼드 서커스까지 가시고... 거기서 센트럴 선으로 갈아타고... 괜찮으시겠어요?                                      |
| 하세가와 · 남편 | 네                                                                                                            |
| 에린(여성)    | 그리고 나서 홀번에서 내려서 거기서 걸어서 15 분 정도 걸릴 겁니다.                                                                      |
| 하세가와 · 부인 | 좀 멀군요. 그리고 길을 알 수 있을까? 어떡할거야?                                                                                |
| 하세가와 · 남편 | 그럴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                                                                                          |
| 에린(여성)    |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라면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버릴 것 같습니다. 런던에 있는 택시는 일본의 전철과 같은 정도로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

### PART 3 티켓은 역 기계에서 간단하게 살 수 있어요.

|         |                                                                                                                  |
|---------|------------------------------------------------------------------------------------------------------------------|
| 와다(남성)  | 저기, 나타샤 씨.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싶은데요... 러시아어도 아직 잘 모르고 걱정이어서... 어떻게 타면 좋을지 알려주지 않으실래요?                                    |
| 나타샤(여성) | 지하철이요? 간단해요. 그렇네요.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노선이 많이 있어서, 먼저, 노선을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세요.                                                  |
| 와다(남성)  | 네.                                                                                                               |
| 나타샤(여성) | 티켓은 창구에서도 괜찮지만, 역 기계에서도 간단하게 살 수 있어요.                                                                            |
| 와다(남성)  | 그래요?                                                                                                             |
| 나타샤(여성) | 지하철도 버스도, 그리고 트램도 탈 수 있는 공통권으로 되어있어서 거리에 관계없이 1 회가 같은 요금이에요.                                                     |
| 와다(남성)  | 아... 그러면 알기 쉬겠네요.                                                                                                |
| 나타샤(여성) | 당분간 모스크바에서 생활을 할 거면, 트로이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편리할 거예요. 간단하게 충전도 할 수 있고. 요금도 더 싸요.                                        |
| 와다(남성)  | 그래요?                                                                                                             |
| 나타샤(여성) | 전차 혹은 노선에 따라서 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색깔의 표시를 보고 찾으면 좋아요. 하지만, 홈에 가기까지의 에스컬레이터가 매우 길고 깊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가는거지" 라고 걱정될지도 몰라요. |
| 와다(남성)  | 그런가요?                                                                                                            |
| 나타샤(여성) | 전차를 타면, 내리는 역은 안내해 주기 때문에, 역의 이름만 주의해서 잘 들으면 괜찮을 거예요.                                                            |
| 와다(남성)  | 알수있으려나..                                                                                                         |
| 나타샤(여성) | 그리고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시간표가 없지만, 전차는 연달아 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역 안이 궁전같이 아름다워서 그걸 보는 것도 즐거울 거예요.                            |
| 와다(남성)  | 고마워. 근데 괜찮으려나...                                                                                                 |

## PART 4 일본 전차는 어때?

도쿄주재의 외국인에게 물어봤다! 일본 전차는 어때?

일본인에게는 당연한 것이어도, 해외에서 보면 놀람이 가득! 그 중 하나가 일본의 전차. 도쿄에 사는 외국인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일본전차는 어쨌든 정확하고 대단해! 시간도 딱, 정차위치도 딱. (인도/남성/40 대)

일본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확실히 그 정확성은 대단한거예요. "겨우 3 분 늦은 걸로 사회의 방송이!" 라고 전차가 늦었을 때의 대응에 놀라는 모양입니다. 한편 "너무 정확해서 위화감이있다"라는 사람도."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야..." "운전수의 월급은 괜찮을까?"라고 철도회사를 동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워 때는 절대 타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붐비지 않아요. (프랑스/여성/30 대)

일본인도 무의식 중에 한숨이 나와버리는 러시아워.... 외국인도 "마치 통조림같다. 괴롭고 움직이지 못하고, 정말로 싫다" "역무원이 멀어 넣는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고 진절머리가 난 모습입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일본인의 건강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한편, "자신의 나라에도 똑같이 붐빈다" "확실히 붐비기는 하지만, 지붕 위에 사람이 타거나 하지 않는 만큼 일본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반응은 나라에 따라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붐비는 중에도 질서 정연! 줄 서서 승차하는, 역시 일본인! (중국, 남성,50 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어느새 일본인에게 몸에 배어져 있는 줄서서 타기. "옆에서 새치기하는 사람이 없어!" "내리는 사람을 확실히 우선시하고 있어"라고 전차에 타는 것도 정확히 줄 서서, 순서를 지키는 일본인의 매너에 감동하는 외국인도 많은 듯하다. "아침의 러시아워 때도 줄 서서 타기는 마치 매스게임 같아요!"라고 집단의 움직임에 놀라는 사람도.

왜 모두 전차에서 자고 있는거야? 역시 일을 너무 해서 지쳐있는 거야? (호주/여성/30 대)

일로 지쳐있기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이거나 저녁 늦거나 하면 확실히 차내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심하고 잘 수 있다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라면 절대 짐을 뺐겨요."라고 치안의 좋음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옆에 사람이 코를 골아서 짜증""공공장소에서 자다니." 라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밖에도 "모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누구도 대화하지 않아" 등 차내의 일본인에 대해서 의문도 여러 있었습니다.

## PART 5 좀 힘든 일을 당했어.

스페인 여행 이틀째. 오늘은 교외로 나갔었다. 돌아오는 길에 트램 티켓을 못 사서, 좀 힘든 일을 당했다. 역의 매표기에서 표를 사려고 했는데, 지갑 안에 동전이 없었다. 20 유로 지폐나 50 유로지폐만 있어서, 매표기에서는 그런 큰 지폐는 사용 못하는 모양. 환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긴 무인역. 게다가 근처에는 가게도... 더 보기

## Topic 9 닌자, 사무라이, 그 무렵은 ...

### PART 1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            |                                                                                  |
|------------|----------------------------------------------------------------------------------|
| 듣는 사람 (여성) | 아, 이 달력, ‘노부나가의 야망’이네요?                                                          |
| 다케다 (남성)   | 응, 잘 아네.                                                                         |
| 듣는 사람 (여성) | 네, 일본 게임은 여러 가지 해 봐서요.                                                           |
| 이마가와 (여성)  | 오-.                                                                              |
| 아사이 (남성)   | 그렇구나.                                                                            |
| 시마즈 (여성)   | 의원데!                                                                             |
| 듣는 사람 (여성) |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어쩌서 일본인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걸까요?                                            |
|            | ①                                                                                |
| 다케다 (남성)   | 그러게. 노부나가는 시대를 바꾸려고 다양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니까, 그런 부분이 인기 있는 거 아닐까.             |
| 듣는 사람 (여성) | 아-.                                                                              |
| 시마즈 (여성)   | 그렇지도 모르겠네요.                                                                      |
| 다케다 (남성)   |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것을 척척 도입한 사람이지. 전국시대의 무장 중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사람. |
| 듣는 사람 (여성) | 혁신적이란 건?                                                                         |
| 다케다 (남성)   | 음-, 새롭다는 거야.                                                                     |
| 듣는 사람 (여성) | 오-, 예를 들면?                                                                       |
| 다케다 (남성)   | 예를 들면, 전쟁에 총을 사용한다거나, 또, 신분이나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자신의 부하로 삼았다고 하고.        |
| 듣는 사람 (여성) | 실력주의라는 거군요.                                                                      |
| 다케다 (남성)   | 응, 하지만 마지막엔, 그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자살해버리지만 말이야.                                           |
| 듣는 사람 (여성) | 드라마틱하네요.                                                                         |
| 다케다 (남성)   | 응, 이런 드라마틱한 부분이, 게임이나 드라마로 만들기 쉬운 걸지도 모르지                                        |
|            | ②                                                                                |
| 이마가와 (여성)  | 그리고 보니, 인터넷인가 어디선가 본 건데, TV 의 대하드라마 주인공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미나모토노 요시츠네라더라             |
| 아사이 (남성)   | 와-, 그래요.                                                                         |
| 시마즈 (여성)   | 아, 요시츠네 말이지. 이해된다.                                                               |
| 듣는 사람 (여성) | 요시츠네가, 누군가요?                                                                     |
| 이마가와 (여성)  | 요시츠네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동생인데..., 요리토모는 알아?                                            |
| 듣는 사람 (여성) | 아뇨.                                                                              |
| 이마가와 (여성)  | 카마쿠라 막부를 연 사람.                                                                   |
| 듣는 사람 (여성) | 음, 막부라는 건?                                                                       |
| 이마가와 (여성)  | 음, 새로운 정부 같은 거려나. 그러니, 요시츠네는 노부나가보다도 훨씬 옛날 시대의 사람이지. 천백 몇 년 정도였을 걸.              |
| 듣는 사람 (여성) | 그 말은, 12 세기라는 거네요.                                                               |
| 이마가와 (여성)  | 응,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고독하게 자란 사람이야. 그래도, 성장하고 나서는 전쟁에서 형인 요리토모를 도와 엄청 활약해.         |
| 듣는 사람 (여성) | 와-.                                                                              |

|            |                                                                                   |
|------------|-----------------------------------------------------------------------------------|
| 이마가와 (여성)  | 하지만, 카마쿠라 막부가 생긴 후, 형제는 대립하고. 음 그러니까... 요시츠네는 겨우 30 대의 젊은 나이였는데, 형에게 살해당해버리지.     |
| 듣는 사람 (여성) | 너무하네요.                                                                            |
| 이마가와 (여성)  | 응, 그래도 그 점이 '비극적인 히어로'라는 이미지가 되는 거지.                                              |
| 듣는 사람 (여성) | 그런가요.                                                                             |
| 이마가와 (여성)  | 게다가 드라마에서는 대체로 잘생긴 젊은 배우가 요시츠네를 연기하니까 멋있고...                                      |
| 시마즈 (여성)   | 확실히, 그런 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            | ③                                                                                 |
| 시마즈 (여성)   | 하지만, 좀 더 옛날 시대의 사람을 다뤄서 드라마를 만들어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
| 아사이 (남성)   | 예를 들면?                                                                            |
| 시마즈 (여성)   | 예를 들면, 쇼토쿠 타이시 (*성덕태자) 같은....                                                     |
| 이마가와 (여성)  | 쇼토쿠 타이시? 그런 게 드라마가 될까?                                                            |
| 시마즈 (여성)   | 음, 어려우려나.                                                                         |
| 듣는 사람 (여성) | 저기, 쇼토쿠 타이시는, 어떤 사람인가요?                                                           |
| 시마즈 (여성)   | 아, 쇼토쿠 타이시는... 언제쯤의 사람이었죠?                                                        |
| 다케다 (남성)   | 7 세기 정도지.                                                                         |
| 시마즈 (여성)   | 맞아, 그쯤이지. 나라에 호류지라고 있잖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조 절.                                       |
| 듣는 사람 (여성) | 가 본 적 있어요!                                                                        |
| 시마즈 (여성)   | 그래, 거기를 세운 사람이야. 뭐 정치가였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10 명의 이야기를 한 번에 듣고 똑바로 대답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야. |
| 듣는 사람 (여성) | 10 명이요                                                                            |
| 시마즈 (여성)   | 법률을 만들거나 불교를 퍼트린 일로도 유명하지만, 중국과의 교류에 힘을 싣는다든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다.                    |
| 이마가와 (여성)  | 요즘에는, 다양한 설이 있는 것 같지만 말이야.                                                        |
| 다케다 (남성)   | 뭐, 그래도, 역시 드라마는 힘들어 보인다.                                                          |
| 시마즈 (여성)   | 음, 그런가요.                                                                          |
| 아사이 (남성)   | 만화로는 나와 있지?                                                                       |
| 시마즈 (여성)   | 네.                                                                                |
|            | ④                                                                                 |
| 아사이 (남성)   | 옛날 시대라면, 히미코 같은 건 어때요?                                                            |
| 시마즈 (여성)   | 히미코!                                                                              |
| 이마가와 (여성)  | 너무 오래 전이다.                                                                        |
| 아사이 (남성)   | 음, 그래도 그 정도로 오래된 편이 로망이 있고, 잘 모르는 만큼 자유롭게 여러 이야기도 만들 수 있어서 재밌잖아요.                 |
| 이마가와 (여성)  | 그러려나.                                                                             |
| 듣는 사람 (여성) | 저기, 오래 전이라니, 언제적 사람인가요?                                                           |
| 아사이 (남성)   | 야요이 시대, 서력으로 말하면, 이백 몇 년인가, 그 정도 시대의 사람일                                          |

|            |                                                                             |
|------------|-----------------------------------------------------------------------------|
|            | 걸.                                                                          |
| 듣는 사람 (여성) | 진짜 옛날이네요.                                                                   |
| 아사이 (남성)   | 일본의 역사 교과서 초반에 꼭 나오잖아요.                                                     |
| 시마즈 (여성)   | 응, 일본인이면 모두 알고 있을 걸.                                                        |
| 아사이 (남성)   | 어떤 의미로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
| 듣는 사람 (여성) | 어, 무슨 일을 한 사람인가요?                                                           |
| 아사이 (남성)   | 응, 야마타이국이라는 나라의 여왕. 점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                                        |
| 듣는 사람 (여성) | 와-.                                                                         |
| 아사이 (남성)   | 중국의 역사책에도 히미코나 야마타이국에 대해 쓰여 있는데, 자세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수수께끼투성이고...                |
| 듣는 사람 (여성) | 그런가요.                                                                       |
| 아사이 (남성)   | 그래도, 그런 게, 미스터리한 이미지잖아? 야마타이국이 일본 어디에 있었는지도 수수께끼고, 그런 게 역사의 로망을 느끼게 한단 말이죠. |
| 이마가와 (여성)  | 뭐, 로망은 있는데, 드라마는 어렵겠는 걸.                                                    |

## PART 2 역시 nin자는 있는 게 틀림없어

|           |                                                                                |
|-----------|--------------------------------------------------------------------------------|
| 리암 (남성)   | 아, 「NARUTO」다. 전 권이 다 갖춰져 있고, 선생님 Naruto 좋아하세요?                                 |
| 사쿠라이 (여성) | 응, 처음에 어떤 만화일까 하고 조금 사 봤더니 빠져 버렸어.                                             |
| 리암 (남성)   | 좋죠. 'NARUTO' 저도 만약 일본에 유학하면 닌자 도장에 가서 진짜 닌자한테 둔갑술을 배우려고요.                      |
| 에밀리 (여성)  | 네? 닌자가 지금 일본에 정말 있을 리가 없잖아요                                                    |
| 리암 (남성)   | 있어. 얼마 전에 재팬 파운데이션에서 닌자 이벤트도 했었고. 둔갑술 도장이라면 미국에도 많이 있잖아.                       |
| 에밀리 (여성)  | 어, 선생님, 지금도 닌자가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
| 사쿠라이 (여성) | 음, 확실히 지금도 도장에서 둔갑술을 가르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건 모두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닌자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 |
| 알렉스 (남성)  | 닌자의 기술이라고 보다는 유도나 합기도 같은 일종의 무술인 것 같습니다.                                       |
| 리암 (남성)   | 하지만 옛날 일본에는 NARUTO 같은 닌자가 있었지요?                                                |
| 에밀리 (여성)  | 그것도 픽션의 세계라니까.                                                                 |
| 사쿠라이 (여성) | 아니야, 완전히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어. 사무라이 시대에는 정말 닌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파이로 활약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
| 에밀리 (여성)  | 에, 하지만 그 검은 옷을 입고 점프해서 지붕 위에 오르거나 모습을 감추거나 물 위를 걷거나 하는 닌자는 없었지요?               |
| 사쿠라이 (여성) | 그렇지, 그런 건 후대에 가서 만들어진 픽션이지.                                                    |
| 리암 (남성)   | 하지만 닌자가 사용한 도구나 무기는 실제로 남아 있잖아요. 수리검이나 '물거미'나 그런 것.                            |
| 알렉스 (남성)  | 물론 지금도 미에현이나 시가현에는 '닌자의 마을' 같은 곳이 있고, 닌자가 실제로 살았던 건물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

|           |                                                                               |
|-----------|-------------------------------------------------------------------------------|
| 리암 (남성)   | 그리고 보니 친구가 일본에서 니자촌에 갔다고 했는데,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다.                  |
| 에밀리 (여성)  | 그거 나중에 만든 테마파크죠?                                                              |
| 사쿠라이 (여성) | 확실히 에도시대부터 남아 있는 진짜는 굉장히 적고, 대부분은 외국인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니자를 테마로 만든 오락 시설이야.         |
| 알렉스 (남성)  | 그렇다기 보다, 결국은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니자에 대한 이국적인 동경, 로망이 중요한 거겠지요. 신비로운 점이 있기에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
| 사쿠라이 (여성) | 뭐, 하지만 니자는 원래 스파이니까, 만약 요즘 시대에 니자가 있어도 절대 비밀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        |
| 리암 (남성)   | 봐, 역시 니자는 있는 게 틀림없어.                                                          |

### PART 3 12세기 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           |                                                                                                                                |
|-----------|--------------------------------------------------------------------------------------------------------------------------------|
| 석구 (남성)   | 요시카와 씨, 저게 앙코르와트예요.                                                                                                            |
| 요시카와 (여성) | 와 저게! 언제쯤 지어졌죠?                                                                                                                |
| 석구 (남성)   | 12세기입니다                                                                                                                        |
| 요시카와 (여성) |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
| 석구 (남성)   | 그 무렵의 캄보디아라고 하면 크메르 왕국 시대예요. 크메르 왕국이라는 게 어...9세기에서 15세기 정도 있었던 크메르인의 나라입니다. 앙코르 왕조라고도 합니다. 크메르 왕국은 대체로 12세기 말에 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
| 요시카와 (여성) | 어휴~                                                                                                                            |
| 석구 (남성)   | 당시 수도에는 여러 나라의 임금들이 인사차 찾아왔다고 해요.                                                                                              |
| 요시카와 (여성) | 어휴~                                                                                                                            |
| 석구 (남성)   | 크메르 왕국에서는 처음엔 힌두교를 믿고... 신앙을 받았으며, 왕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수도나 사원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앙코르 와트도 그 중 하나로, 이 근처에는 이러한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
| 요시카와 (여성) | 그렇습니까.                                                                                                                         |
| 석구 (남성)   | 음, 앙코르 와트가 세워진 것은 바로 술리아 발만 2세라는 왕 때입니다. 만드는 데 30년이나 걸렸대요                                                                      |
| 요시카와 (여성) | 그렇게.                                                                                                                           |
| 석구 (남성)   | 인근 마을 사람들이나 전쟁 때 포로? 가 된 사람들이 모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했대요.                                                                            |
| 요시카와 (여성) | 어휴~                                                                                                                            |
| 석구 (남성)   |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왕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
| 요시카와 (여성) | 그래요? 빨리 보고 싶군요.                                                                                                                |

### PART 4 마음에 남는 전국무장의 명언

마음에 남는 전국 무장의 명언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켄신

좋아하는 전국무장 랭킹에 꼭 들 정도로 이름을 올린 다케다신겐과 우에스기 켄신.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라이벌로 그려져 12 년간 5 회에 걸쳐 싸운 「카와나카지마 전투」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장수였는지 그들이 남긴 명언을 소개하고자 한다.

#### 다케다신겐

싸움에 이긴다는 것은 절반을 상으로, 70%를 중으로, 100%를 하로 한다.

싸움에 이길 때는 50%가 가장 좋고 70%가 이기면 아무렴 좋은 편이고, 100%가 이기면 안 좋다.

싸움꾼으로서 알려져 「카이 호랑이」 라고 다들 두려워했던 다케다 신겐. 그의 승리에 대한 생각이 이 말에 나타나 있다. 승부에 있어서 신겐은 50%의 승이라면 향후 자극이 되어 좋다, 70%의 승이라면 게으른 마음이 생길 우려가 있다, 100%의 승리, 완전한 승리가 되면 상대를 깔보고 자만심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즉 상대를 낮게 보거나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음은 쳐버리는 것이다. 방심하지 말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신겐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강한 향상심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이다.

#### 우에스기켄신

「사람이 약해졌을 때 공격하는 것은 본의 아닌 일이다.」

상대방이 힘이 떨어질 때 공격해서 이기는 것은 내 소망이 아니다.

신겐이 사망했을 때 켄신의 주위에서는 이번 기회에 다케다를 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한다. 그때 켄신이 하였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라이벌 관계에 있던 신겐이 죽었다고 하면 보통 기회라 생각하고 군사를 파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켄신은 상대가 약해졌다고 해서 그곳을 공격하지는 않았다.

적에게 소금을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 역시 켄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겐의 나라, 카이는 바다가 없어 소금을 잡을 수 없다. 그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소금막이를 당했을 때 매우 난처해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켄신은 자신의 나라 에치고로부터 소금을 보냈다고 한다. 켄신은 어떤 수단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전국시대에 있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무장이었을 것이다.

역시 전란의 세상을 산 명장의 말. 지금 시대에도, 비즈니스나 스포츠 등에 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는 달라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 PART 5 역사 속 인물 명언 소개

#### 우에스기 켄신의 명언

일 때문에 니가타현 조에쓰시에 갔더니, 마침 '켄신공제(謙信公祭)'가 한창이었습니다. 니가타의 전국 무장 우에스기 켄신의 축제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놀랐어요.

우에스기 켄신이라고 하면, 나는 「사람의 약해진 시기를 보고 공격하는 것은 본의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상대가 약해져 있을 때 공격해 이기는 것은 내 소망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켄신의 최대 라이벌 다케다 신겐이 사망했을 때, '신겐이 없어진 지금이 기회. 지금은 다케다에게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부하가 말했고, 이에 대해 켄신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기기 위해선 뭘 해도 좋다는 전국시대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지네요. 스포츠든 뭐든 진짜 이기고 싶은 상대란 서로의 힘을 다 쏟아 승부를 걸고 싶어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명언이 뭐 있어요?



翻訳

시사일본어사